NOV 2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6 1982년 11월 2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2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대낮 흑인강도침입 권총난사
LA교포부부 피살
캐쉬보던 아들도 중상…"돈내라" 응했는데도 발사

(LA지사)— LA흑인지역인 캄톤시에서 그로서리마켓을 경영하던 교포 일가족3명이 흑인 권총강도의 무차별 난사로 주인부부 2명이 숨지고 아들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16일 하오 4시16분께 LA남쪽 캄톤시 태기마켓(Tagy Market, 14609 S. Atlantic Ave. 주인·함기풍)에 45구경 권총을 소지한 30대의 흑인 1명이 들어와 돈을 요구, 캐쉬어를 보던 아들 함성일씨(26)가 캐쉬어서랍채 범인에게 내놓았으나 총을 발사했다. 이어 가게내에서 이광경을 목격 울부짖는 아버지 함기풍씨(53), 어머니 함복수씨(50)에게도 연달아 난사, 부부가 모두 숨졌다.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아들 함씨는 곧 마틴루터킹하스피탈(12021 S. Wilmington Ave. LA)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은 건졌다.

아버지 함씨는 가슴에 2발이 명중, 병원으로 옮기는중 절명했으며 머리에 한발을 맞은 어머니함씨도 파라마운트서버빈 챠터하스피탈로 급송되어 뇌수술을 받던중 이날 하오10시20분께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캄톤경찰서 웨브수사관에 의하면 이날 범인은 마켓내에서 물건을 고르는체하다 갑자기 45구경권총을 꺼내 함군에게 돈을 요구, 함군이 잠시 주저하다 캐쉬어 서랍을 두손으로 빼내 카운터위에 던지듯이 올려놓자 총탄을 발사했다.

이어 범인은 옆진열대에서 총소리에 놀라 뛰쳐나오던 아버지에게 두발을 쏘았으며 이광경을 목격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 머리에도 총격을 가했다. 범인은 이어 카운터위에 올려진 캐쉬어서랍서 현금등을 닥치는대로 집어 주머니에 쑤셔넣은후 도주했다.

캄톤경찰서 서전트 토니·루이즈수사관은 당시 마켓뒤쪽에는 3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며 총격이 발생한 앞쪽에도 4~5명의 손님등 모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길건너편에 있는 76주유소의 한인종업원은 총소리한발을 듣고 마켓으로 달려갔을때 부인이 쓰러져있었으며 남편 함씨가 부인을 부둥켜 안은채 울부짖으며 범인을 향해 마구 식료품등 물건을 집어던지자 범인은 연달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 목격자는 범인은 범행후 마켓밖으로 나와 자동차없이 애틀랜틱애비뉴 남쪽으로 뛰어 달아났다고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사건당시 함씨가족이외에도 현장에 몇몇손님등이 있었으나 범인이 유독 함씨일가에 총격을 가하고 아들이 결국 범인요구대로 현금이든 캐쉬어서랍을 건네주었는데도 총을 쏜점등을 미루어보아 함씨일가족에 얼굴이 알려진 고객이었거나 평소 원한을 품은자가 아닌가 추측하고있다.

▲가족이 참변－경찰이 밤늦게까지 사건현장을 체크하고있다. 함씨의 마켓은 그로서리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큰 규모로 범행당시 마켓안에 손님도 5~6명 있었다. 〈유근철기자찍음〉

추방 ABC기자 한국재입국거절

〈홍콩－ 〉 비자목적위반으로 한국에서 출국당한 ABC방송의 프리랜서 낸시·랭스턴(29)이 17일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에 입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랭스턴은 『홍콩의 한국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을때 17일 발급해준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가보니 비자발급이 거부됐다면서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랭스턴은 지난 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었으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대소관계 개선시도
마샹 외무차관 소련방문

(오타와) 캐나다는 소련의 신정권과 "광범위한 회담"을 갖기 위해 강력한 외교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하는등 소련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드·몽티니·마샹 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 외교사절단이 지난 15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소련 고위관리들과 잇단 회담을 갖고, 무역, 소매판매등 긴요한 문제와 문화및 과학방면의 접촉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실질적 회담은 1979년12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미샹 외무차관의 모스크바방문은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이 있기 훨씬 전에 알렌·메케큰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와 사석에서 만나 합의를 본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의 연쇄회담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조·클락의 보수당정부가 소련과의 일련의 문화및 과학교류를 취소한 후 캐나다와 소련이 다시 외교관계를 부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중·고교성적표 일관화 86년에나 실현될듯

온타리오주 문교부는 중·고등학교의 성적 기록방법을 통일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18일 베티·스티븐슨 문교부장관이 밝혔다.

지금까지 각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성적기재방법이 달라 졸업뒤 대학이나 직장에서 평가에 비교가 힘든 불편이 있었다.

60년대 윌렴·데이비스(현수상) 교육장관 당시 온타리오주는 각 스쿨·보드별로 성적기재방법을 자유화 시켰었다.

내년초에나 초안될 새 일괄 성적기재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각 학교에서는 86년 6월에나 이를 채택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다시 시작하자…맹훈련 돌입

▲미국20여개도시 NFL훈련캠프가 17일 대부분 오픈했다. 21일부터 재개될 풋볼정규시즌을 위한 맹훈련에 들어가는것. 카디널스팀의 러닝백 오티스·앤더슨이 17일 아침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고있다. 카디널스는 21일 전년도 수퍼볼 챔피언 SF의 49ers와 대결한다. 〈세인루이스 〉

「57일 罷業」끝났다

김득구 약혼녀 영혼결혼
22일 장례식에서

(서울－19일＝연합) 고 김득구선수의 약혼녀가 오는 22일 김선수의 장례식날 영혼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5일간 의식을 잃은채 사경을 헤매다가 구명보조기 제거로 사망한 김선수의 약혼녀 이명희양(21)은 19일 "이미 임신3개월이며 배속에 있는 아이에게 김선수의 못이룬 꿈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양은 김선수와 장래를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81년 9월 김선수와 훈련중에 체육관에서 알게 됐다는 이양은 그 체육관에서 사무원으로 일해왔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 추도식을 갖기로 한 한국권투위원회(KBC)는 당분간 일체의 복싱경기를 중단키로 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나이아가라 본점 / 만남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사 고▶
한인업소전화부 12호 12월에 발간예정

토론토 한국일보사는 한인업소·단체 전화부 제12호를 오는 성탄절(12월25일)을 전후해서 발간합니다.

본사는 80년12월25일 업소전화부(Korean Business & Organization Directory) 11호를 발행한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음호를 이제껏 준비하지 못했읍니다.

이제 교민사회에서의 업소전화부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실제로 교민여러분의 요청이 커 발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업소전화부에 게재되기 위한 요금은 별도로 없으며 누구든지 요청하시면 게재되며, 본사는 기관이름·상호·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을 적절하게 배치, 토론토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 업소,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합니다. 단체·업소전화부는 한국일보와 함께 독자 가정에 배달되며, 이밖에 특별히 요청해 주시면 누구에게든지 별도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게재대상
1)한인기관·한인단체
2)한인이 주고객이거나 교포들도 많이 이용할 업소.(따라서 맥스·밀크, 베커·스토어, 버라이어티·스토어등은 제외됨)
3)종교기관, 교습소, 의사, 변호사등 전문인기관

★게재 신청마감: 12월10일(금)
★업소부에 실리는 광고신청 마감: 12월6일(월)

※주의: 다음 해당자는 특히 연락요망함.
80년12월 이후,
1)새로 생겼거나
2)없어졌거나,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 단체
3)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등이 변경된 단체·기관·업소.

토론토 한국일보사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1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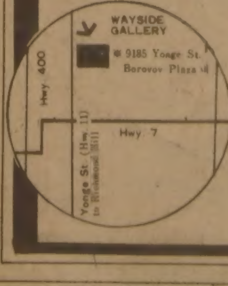
운파 이정복
동양화 초대

홀로
오랜길을 걸어 온
그의 화풍 속엔

순수한 바위의 미학(美学)이
스며져 있다.

산은 가까우면서도 멀기에
그가
찾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
그 산 소리

비어두었던
저녁연기 나는
동리(洞里)를 찾아 가는 길손.



□일 시 :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28일(일) 특별오픈(12시～6시)
□관람시간 : 주중10시～6시(월.화.수.토) 주말10시～8시(목.금)
□리 셉 숀 : 11월26일 오후7시
□장 소 : WAYSIDE 갤러리(9185 YONGE ST.) TEL. 886－1667
□협 찬 : 토론토한인회 서울대학농대 동창회
토론토한인회관 이전건립위원회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주관 : WAYSIDE 갤러리 (길섶화랑)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토론토에 낙태시술병원

모겐테일러씨 7백여명과 지지대회

낙태전문의 헨리·모겐테일러씨를 중심으로 한 7백여명의 낙태자유화 지지자들이 18일밤 시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모겐테일러씨는 토론토에서, 가능하다면 캐나다 전국에 낙태시술병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토론토의 경우는 시험케이스라고 말하고, 재투옥생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모겐테일러씨는 11월말까지 토론토 낙태병원을 설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스카보로의 레슬리·스몰링의사가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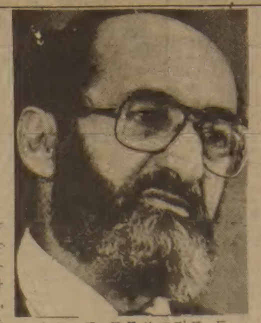
18일밤 낙태자유화 대회가 열린 OISE회관 밖에서는 40여명의 낙태반대자들의 데모도 벌어졌다.

캐나다 법에서는 3명의 의사의 승인아래 정규병원에서 시술되지 않을 경우 낙태수술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모겐테일러씨는 온타리오주의 로이·맥미트리 검찰총장의 고소위협에도 불구,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캐나다의 낙태법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퇴물이라고 말했다.

모겐테일러씨는 70년대에 세번이나 퀘벡정부로부터 불법낙태시술로 고소받았으나, 세번 다 법정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75년도에 연방대법원이 퀘백주 배심원의 판정을 뒤집은 바람에 10개월 옥고를 치르렀었다.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몬트리얼의 낙태시술원은 연방법에 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퀘백주정부가 주배심원들의 판결을 존중,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영업하고 있다.



◆옥고를 무릅쓰고라도 토론토에 낙태시술원을 세우겠다는 헨리·모겐테일러의사

노스욕 성탄행사

12월4일부터 열려

노스·욕 시티·홀(5100 영·스트릿)에서는 오는 12월4일부터 젊은층과 노년층을 위한 각종 크리스마스 축제행사가 열린다.

첫날 4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베노리박사의 Travelling Goodtime Show와 노스·욕 도서관 직원들이 출연하는 "Three Wishes"극이 준비되어 있다.

5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댄스파티와 에트닉합창단의 공연이 있다.

11일은 노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파티가 바우데비리안·코메디·쇼로 시작, 산타크로스와 빙고게임이 벌어진다.

기타 크리스마스축제는 다음과 같다.

○12월9일(7:30PM~9:30PM)-차누카축제

○12월12일(7:00PM~9:00PM)-크리스마스 스토리

○12월16일(7:30PM~9:30PM)-이태리 크리스마스 카바레

○12월18일(2:00PM~4:00PM)-크리스마스·페어

○12월19일(7:30PM~9:30PM)-파랑세

모든 행사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스·욕 시청의 홍보실(224-6084)로 하면 된다.

테러·독재화 개탄 세계적작가 그린옹

(리비에라=프랑스)「제3의 사나이」,「사랑의 종말」,「양전한 아메리카인」등 본격추리소설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행동파 영국작가 그레암·그린(78)은 지난8일 남불 리비에라의 자택에서 "자주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포심은 없으나, 신작을 착수해도 끝까지 써낼지 여부를 생각한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그는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가진 프랑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문제중 포클랜드 분쟁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다"고 지적, "아르젠틴의 공격에 반격하는 것은 당연했으며, 그 결과로 아르젠틴의 군사정권이 무너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테러나 독제등으로 세계는 악하게만 되어간다"고 개탄하고, 미국 레이건정권의 엘살바돌 군사정권 지지를 비난했다.

社說 파티 시즌

—피차 피해를 주지말자—

만감이 오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또다시 각종 파티의 성수기가 다가왔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교와 즐김을 함께 하는 모임과 때를 맞추어 "소비성, 낭비성이 아닌 건전파티"를 제창하는 「파티 반성론」도 일곤한다.

각기관, 군소단체, 종교계, 업체연합, 동창회나 동향모임에 이르기까지 수백을 헤아리는 각종 망년회·성탄파티·신년잔치등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끄티를 고 벌어지는 것이 매년 11월 하순부터 해를 넘긴 정월 중순까지의 계절풍같이 되고 있다.

이국만리에 동떨어져 살며, 고되고 외로운 겨레끼리 자리를 같이 하여 절절한 향수를 달래고, 스트레스해소로 정신적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맞는 것을 구태어 탓할필요는 없으나 보다 화애롭고 보람다운 건전친교의 도를 지나치는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고액의 참가비는 불문하더라도 돈낭비, 시간낭비, 건강낭비는 삼가야하고, 집에 둔 자녀들 생각도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겠다.

「푸짐한 음식, 푸짐한 술」이 쓰레기로 버릴 정도로 과하게 준비될 필요도 없고, 화사스러운 복장, 고급 보석류 장신구가 경쟁적으로 착용, 과시될 필요는 더 더군다나 없다. 시간을 농도높게 사용, 짧은 시간안에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 소위「뿌리를 뽑는다」는 식의 파티가 계속된다면 참석자들도, 또 준비하는 주최측의 심신도 고달프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시간의 낭비요, 건강의 낭비이기 때문에 좋은 일로 모였다가 주객모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헤어지는 격이 된다.

지난 1년간을 감사하고, 반성하며 내년을 설계하는 의미를 갖는 파티계절을 맞아 우리는:

◉첫째, 소비(시간·건강·돈)지향적 모임에서 탈피, 허례허식, 없는 실속있고 건전한 모임을 갖자.

◉둘째,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경쟁의식적 파티는 갖지 말자.

◉세째, 약속된 시각에 모였다가 일정시각에 헤어지는 시간 지키기.

◉네째, 한가지씩은 뜻있는 일을 힘을 합쳐 하든가, 한가지씩을 배워가든가 하는 건설적이고도 미래지향적 모임.

◉다섯째, 가능하면 캐네디안들과도 파티를 가져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한다.

◉여섯째, 모임경비가 가급적 교포업소의 수중에 돌아가도록 배려한다.(인종차별적이요, 폐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할 사람도 있으나 아직도 한인업소의 성장없이는 한인사회 발전 없음)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를 있게한 조물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는 외로운 겨레가 있고, 시간과 돈이 없어 파티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다. 늙고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동포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인사회서는 한인회관 이전, 한국학과 설치, 양로원 설립, 장학금 확보등의 모금운동이 헌신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인교향악단, 한인합창단등 문화단체는 이 땅에 "한국인은 독재만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사랑한다"는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민들의 전폭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파티의 계절은 또한 자선의 계절이다.

자유당 전당대회 참관기③

이태은(본보 오타와지국장 : 자유당대의원)

선거전이 과열되었어도, 난동을 부리거나 각목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다. 피켓을 꺼꾸로 들고 있다가 지자할때만 이름을 일제히 흔들어대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엔 모두 한국처럼 각목전쟁터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다.

정견발표직후에「아이오나」후보는 전대의원들에 B.C.에서 가지고 온 사과1개씩을 선물로 돌렸는데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았다.

상오8시부터 투표장입구에 각후보자와 거물지지자(장관, 국회의원)들이 미인들과 함께 키스세례, 팜플렛, 악수등 갖가지 방법으로 막바지선거운동에 안간힘이다.

투표는 원색으로 인쇄용지에 후보이름을 직접 기재하게 되어있는, 다른선거방법과 조금다른 것이 특색이다. 일련넘버가 적힌 투표용지를 받고 좌우 15개의 기재소 칸막이를 선택, 기재하고 마련된 24개중에 하나의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결과는 아이오나·캠파뇰로 1,197표, 놈·매클리오드 507표였다.

이제부터 자유당 리더의 향방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양상으로 접어들 것 같다.

경제문제만 아니라 트루도수상의 개인 인기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여름 트르도가 실업자들부터 당한 달걀·토마토세례는 인기 하락을 보여준다. 수상은 뱅쿠버의 외갓집에서 여름방학을 보낸 미셸, 샤샤, 자스틴 세아들을 데리고 오다 때마침 빈차로 돌아오는 총독전용기차 빌려 탔을때 당한 사건이다. 양복을 여러차례 갈아입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자고「부라운관」에서 외쳐대도「갤럽조사」에 의한 인기도는 금년초부터 계속 하락되고 있다.

트루도자신도 더이상 수상직을 원치도 안치만 당내사정도 트루도를 더이상 리더로 연장시킬 수 없게 됐다.

그 이유중에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언론에서 합의라도 한것같이 트루도 개인에 대해 매일 비난을 퍼붓기 때문에 당의차기선거와도 연결된다. 크게 우울해하던 트루도가 명년초 돌연 사임할 거라는 풍문이 나돌정도로 사임은 기정사실이지만 당내사정으로 보아 현상태에서 수상의 조기사임은 당의 자폭이나 마찬가지, 대부 후계자 윤곽이 올때까지 당을 위해서 최후로 경제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각목은 있으나 싸움은 없고 맥도날드, 존터너 후계자부상

이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수상후보자들을 살펴보자:

맨먼저 끈질기게 수상후보로 오르내리는 존·터너(토론토출신변호사, 전재무장관) 미남에다 완전한 정치가로 대의원들로부터 정평을 받고 있는 데다, 전국체인에 의한 생산공장, 광산, 은행등 재력으로도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또 트루도의 오른팔로 불리우던 장·크리치엥(현 에너지장관, 전재무·법무장관)이「아이오나」회장후보 선거참모로서 측면지원, 강력하게 밀었던걸로 보아, 서부지역 기반의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시 수상이 돌연 1급 경제담당로열코미셔너로서 컴백한「도날드·맥로날드」(전재무장관)가 수상후보 레이스에 보장을 받은것 같다.

이밖에도 유진 휠튼(농림장관), 폴·헬러(Heller)(전국방장관), 또 왕년의 명우「스츠워드 그랜저」와 흡사닮아 여성에게 인기있다는 미남장관 탬니(무역장관) 등이 모두「아이오나」를 지지 후보경쟁에 나설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수상자리에 오를수 있는 필수관문인 재무장관 경력이 없어서 흠이다.

캐나다의 대처를 꿈꾸는 야심적인 아이오나 현회장이 다크호스처럼 후보경쟁에 뛰어들 것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수상후보로서는 경력, 품위등에 대처와 비교도 안된데다가, 지난 80년선거인 MP고지에서 탈락된게 가장 큰약점, 아무튼 뒷전에서 특정후보만 밀어줄지 또는 캐나다에 최초의 여성수상후보로 등장하게 될지는 누구나 예측을 불허한다.

늦어도「리더」선출은 임기만료 7-8개월전에는 해야 되는것을 빠르면 내년 여름휴가가 끝나는 후로보고, 바야흐로 이제 집권당인 자유당내는 영웅호걸이 날뛰는 군웅할거시대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끝)

◆5일밤에 있은 댄스파티에서 젊은 여성대의원과 디스코에 열중하는 트루도수상.

'88 서울올림픽 중계 경쟁치열

CBS·NBC·ABC 3개TV국 희망해와

【서울 19일 연합통신 본지사특약】 CBS-TV, NBC-TV, ABC-TV등 미국의 3대 TV방송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 독점 중계방송을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CBS, NBC, ABC등 미국 3대 TV방송국은 서울올림픽 독점중계권을 얻기위해 회사대표, 혹은 고위관리들이 지난 여름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서울올림픽 독점중계료는 5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올림픽대회실황은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칼러TV로 방영될 계획이다.

◁금주의 행사▷

—11월22일(월)~28일(일)—

◆11월25일(목)~28일(일) 하오7시30분
침례교회 대부흥회(강사:이영섭목사)
곳 :720 Ossington Ave. Tor.
연락처 : 531-7604, 533-1877

◆25일(목) 하오7시30분
박재훈·김인환씨 목사안수식
곳 : 토론토영락교회(126 O'connor Dr. Tor)
연락처 : 423-9880

◆26일(금)~12월4일 상오10시~하오5시
이정복 동양화개인전
곳 : Wayside화랑(9185 Yonge St.)
연락처 : 886-1667

◆27일(토) 하오2시
한인회장선거 임시 총회
곳 :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
연락처 : 755-9288(한인회)

◆27일(토) 상오9시 코리언저널사 주최 탁구대회
곳 : 웨스트우드고교(994 Carlow Ave.)
연락처 : 757-8000

◆27일(토) 하오7시「동국인의 밤」
동국대학동문회 망년회
곳 : Inn on the Park(1100 Eglinton Ave. E.)
연락처 : 844-2922, 421-5613

◆27일(토) 하오5시 런던한인회 경로잔치
곳 : Bavarian Tavern(런던)
연락처 : (519)245-2003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밍크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미스월드 레브런양

(런던) 1982년도 미스·월드로 미스 도미니카공화국인 건축학도 마리아셀라·레브런양이 뽑혔다.

18일 영국 런던에서 67명의 세계 각지 후보를 물리치고 뽑힌 입상자들은 2위에 미스·핀랜드, 3위에 미스·영국이 다.

미스·캐나다인 캘거리의 토디·젠센양은 결선에 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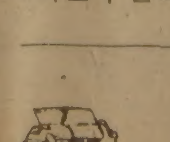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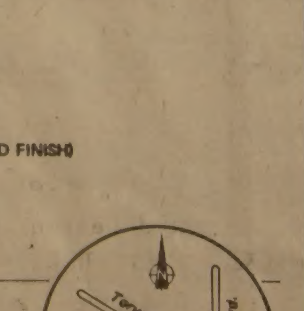
새 미스·월드는 5피드 10인치키에 갈색머리, 갈색눈동자를 가졌다.

한편 이 대회에서는 미스·짐밥웨(아프리카주)인 22살 캐롤라인·뮤린다양이 대회 주최측이 인종차별적이라고 항의해서 잠시. 시끄러워 지기도 했다. 미스·짐밥웨는 다른 후보들에게 밀치우고, 사진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불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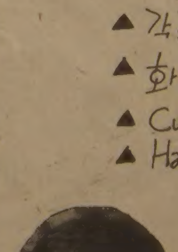
이에 대해 주최측은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밀톤 한인회
총회및 송년파티공고
일 시 : 1982년12월11일(토) 오후 8 시
장 소 : CYRILL CHURCH HALL. 204 PARK ST. NORTH HAMILTON
내 용 : 업무보고, 회장선거, 노래자랑, 댄스파티
입장료 : 일체무료(단 찬조금은 접수함)
※권순근악단 출연및 다수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해밀톤지구
한인회장 이 영 구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 덕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그라운드에 돌아온「프로풋볼」

선수들 봉급인상 잠정동의 올시즌 21일부터오픈

10년이상고참 연봉 최저14만불 신참 3만·2년이상퇴직 수당도
수퍼볼은 예정대로 내년 1월30일에

〈뉴욕 〉 지난9월21일부터 57일간 계속되었던 내셔널풋볼연맹(NFL)파업은 16일밤 28명의 NFL선수대표들이 총16억달러에 달하는 5년계약을 수락하기로 잠정동의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NFL파업종식에 따라 풋볼 선수들은 17일부터 훈련에 들어가며 시즌게임은 2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비록 파업이 일단 종식되었다 할지라도 1천5백명의 NFL선수들은 선수협회(PA)와 NFL경영협의회의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잠정협정에 오는23일 투표를 해야한다.

파업종식에 따른 새풋볼게임스케쥴에 의하면 NFL은 9개게임정규시즌을 갖게된다. 이중 한게임은 파업으로 실시하지못한 게임에 대한 보충게임으로서 내년1월2일 실시한다.

NFL게임의 최종결승전인 수퍼볼게임은 예정대로 파사데나에서 내년1월30일 실시한다.

내년 1월9일부터 시작되는 각조의 결승전은 3회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조 우승팀이 수퍼볼게임에서 대전하게된다.

구단주와 대우문제로 오랫동안 투쟁을 벌여왔던 선수들은 이번파업을 통해 풋볼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수들임을 인식시켰으며 구단주와 선수사이에 동업자라는 개념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파업종식협상에 중재역할을 한 사람은 전에 NFL선수였던 폴·마사 변호사로 밝혀졌다.

마사는 4년간의 잠정협정계약총액이 12억8천만달러며 이번 시즌계약총액은 약3억달러라고 협상결과를 밝혔다.

잠정협정에 따르면 종전의 디비젼칭호가 없어지고 동부 컨퍼런스조의 14개팀과 서부컨퍼런스조의 14개팀이 각각 8번 대전을 벌이게 되어있다.

풋볼선수의 처우를 개선한 잠정협정계약에 따르면 신참선수의 최저봉급은 금년에 3만달러로, 1983년과 1984년 4만달러로, 1985년과 1986년 5만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현재 NFL신참선수 최저봉급은 2만2천달러로 알려져있다.

이 계약에 따라 12년의 경력을 가진 고참선수의 최저봉급은 14만달러로 즉시 인상된다.

잠정협정은 또한 이번시즌에 고참선수들에게 6천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 경영소식통에 의하면 NFL풋볼팀소유자들은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수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퇴직수당은 선수경력이 2년일경우 5천달러, 3년이면 2만달러, 4년이면 6만달러, 5년이면 7만달러며 5년이후부터 매년 1만달러씩 더 추가의 퇴직수당을 받게된다.

한편 이번파업종식에 따라 LA램스팀은 21일 아틀란타와, LA로 이번시즌부터 이적한 레이더스는 27일 샌디에고와 각각 첫게임을 갖게된다.

▲끝났읍니다—미스포츠사상 가장 비싼 댓가를 치른것으로 알려진 57일간의 파업을 종식시킨후 만족한 표정의 선수측 협상대표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욕— 〉

金聖鍾작

29분의 1 ⑱

"경찰이 다시오면 무조건 잡아떼야지"

「어떻게 해요?」

그녀가 한참만에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발작이라도 일으킬것만같은 기분이었다.

「옥자한테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어.」

그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어떡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것 같았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어. 그애한테서 말이날줄 누가 알았어.」

「기다려보다니요? 형사가 잡으러 올텐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너무 기가막혀 미칠것 같았다.

「그렇게 쉽게잡으러오지는 못할거야. 옥자의 진술이 결정적인증거는 못되니까. 그애가 모세를 몇번이나 봤지?」

문자는 잠시 생각해보고나서 대답했다.

「한번 봤을거예요. 제가 모세의전화를 받지않으니까 그놈이 집으로 찾아왔더랬는데 그때봤어요.」

「그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나?」

「네, 그랬어요.」

「그럼 옥자가 그놈 얼굴을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군.」

「그렇지만 대강 알수 있지않아요?」

「경찰은 대강 알아가지고 사람을 체포하지는 않아. 분명해야만 체포해.」

「모세전화도 그 애가 몇번 받았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는 없어.」

오빠의 말에 그녀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래도 대책은 세워야할거 아니예요?」

「물론 세워야지. 경찰이 다시오면 무조건 잡아떼. 그게 상책이니까.」

그들 오누이는 10분쯤 더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자정이 거의 되어서 제15반장은 그날의 수사결과를 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센터의 한방에서 실사가 시작되었는데, 먼저 네 집 가운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좋을 집들을 골라내 보았다.

제1반 집주인 박세기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외국에 있었다. 그래서 무난히 수사대상에서 제외될수가 있었다.

「여자가 범인일수도 있자만 일단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남자가 범인이라고 보고 박세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거야.」

김준호 반장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정을 적용시키나요?」

「물론이지.」

마원은 두번째 사나이를 머리속에 그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번째는 대학교수인 서치수였다. 그는 모세가 살해되기 엿새전인 11월 29일에 이사했기때문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번째는 잠시 젖어두고 네번째로 넘어갔다.

네번째는 남미란 (南美蘭) 이란는 과부였다.

「과부라고 하지만 잘 살더군. 인물도 그만하면 남자들의 시선을 끌겠고….」

「남자옷들이 걸려있는걸보니까 출입하는 남자가 있는것 같던데요.」

「그렇테지. 아뭏든 과부니까 제외시키는게 좋겠지.」

朴 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3>

이철수사면청원

후원회,서명운동 전개도

이철수후원회와 변호인단은 13일 에드먼드·브라운주지사에게 오는 12월15일까지 이철수씨사면을 청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LA이철수후원회가 주관한 4개지역(LA, 뉴욕, 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 후원회관계자및 변호인모임에는 유재건후원회장을 비롯 스튜어트·헨론변호사, 랑끄·야마다변호사, 패티·장, 위렌·후투따니등 관계자15명이 참석했다.

이철수씨는 지난9월3일 샌프란시스코법정(재판장-로버트·도시)에서 배심원전원일치의 무죄평결로 제1사건(차이나타운갱살인사건)재심에서 완전무죄가 확정됐으나 제2사건(옥중살인사건)의 계류로 샌퀸틴교도소에 계속 수감중이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1~385~1485
서부지점 ☎:243~9544

〈식품점〉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제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동부)	291-8317
서울식품(서부)	243-9544

한국일보는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
한국의 거성
민요가수 김세레나
처음 토론토에 오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인(다운타운)
89 Chestnut(977—0707)
입장료 : $25(디너포함)
□ 매표장소 : 각 식품점및 식당
□ 권순근및 그의악단
□ 찬조출연 : 가수 김미리자
토론토지구한인회

相續·증여稅 현행대로

民正、民韓주장에 양보

相續稅 기초·住宅공제는 政府案대로
年老 3백만원·不具者 8백만원으로

財務委小委

국회재무위의 稅法심사小委는 17일하오 相續稅法개정안중 상속세율은 최저 7%(1백만원이하)에서 최고60%(5억원초과)까지 15단계로된 현행稅率대로, 또贈與稅率도 최저 7%에서 최고67%까지의 14단계로 되어있는 현행稅率을 각각 그대로 적용키로했다.

小委는 이날 최저10%에서 최고50%로 조정한 정부案을 토대로 稅率을 조정하자는 民正黨의 주장과 稅率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民韓黨측 주장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으나 民正黨이 양보하여 현행대로 하기로했다.

이날 小委는 또 相續재산의 控除부분에 있어 年老者 공제액을 현행1백만원에서 3백만원(정부案 2백만원)、不具廢疾者 공제액을 1백80만원에서 8백만원(정부案 5백만원)씩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날 小委는 또 상속세재산控除부분에있어 정부案대로 ▲기초공제(1천만원) ▲주배우자공제(2천만원) ▲주택상속공제액(6천만원) ▲農地·草地·山林地공제액(7천만원)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백만원까지 장례비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小委는 이날로 상속세법안에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고 18일부터 法人稅法등에관한 심사에 착수할예정이다.

레바논 外國軍철수 오늘 협상시작될듯

【베이루트·예루살렘AP AFP=聯】레바논주둔 외국군의 철수협상이 빠르면 하비브 미중동특사가 베이루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18일 개시될수 있을 것이라고 레바논 소식통들이 16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이 협상에 참가할 레바논 대표단의 구성을 수락했기때문에 현재 금주중 베이루트 남서의 한 호텔에서 열릴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은 이날 모든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레바논을 떠나야 하며 시리아군도 이스라엘군 제1진이 철수하기 앞서 레바논 중부 산악지대로부터 철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샤론국방상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 외교안보위원회 비공개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와같이 말했다.

醫療非理 뿌리뽑기로

淨化委、종합대책

惡德병원 免許취소

정부는 의료수가 시비, 불합리한 특진제도, 변태적인 병원운영등 고질적인 의료부조리를 제거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金聖基)는 17일 내무、재무、문교、보사、서울시、치안본부등 관련 10개 부처청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0일까지 전국각급 의료기관의 직장정화추진위원회를 전반개편·보강하는등 오는 83년말까지 의료계의풍토를 완전쇄신하기위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정화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2차에 걸쳐 수도권지역의 16개종합병원과 제약회사、자동차보험회사、입원환자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시설、의료수가、진료체제、의료인의 자세등 전반적인 병·의원 운영실태가 환자들의 불만·불신의 요인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악덕의료인의 횡포를 뿌리뽑기위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것이다.

이날회의에서는 우선 1단계조치로 오는 12월10일까지 각급의료기관의 직장정화추진위원장을 병원장으로 격상시켜 병원운영상의 각종비리와 문제점등을 시정하고、대국민친절과 의료봉사기능을 높이는방법등 직장정화운동의 내실화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다.

또 각급의료기관의 직장정화추진위는 반드시 월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실천과제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의사·간호원·사무직원등에대한 자체교육을 실시、친절·봉사정신과 의료인의 긍지를 심어나가도록했다.

정화위는 특히 이같은 의료기관정화추진과 아울러 악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개설허가나 자격면허를 취소할수있도록 의료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토록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청들은 분기마다 산하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결과를 사회정화위에 통보토록 했다.

阿銀 문콤바總裁에 全대통령、훈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청와대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윌라·문콤바총재(감비아人)를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수여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姜慶植재무장관、朴賛兢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北傀기습공격 對備 攻勢的방어를 強化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82년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사진)가 17일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尹誠敏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82년도 국방업무전반에 관한 분석과 83년도 군 운용지침이 시달된 이날 회의에서 군주요 지휘관들은 『현재 미소간에 일고있는 신냉전체제와 중소간화해 조짐이 극동지역의 세력균형을 와해시키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북괴는 대남무력적화를위한 강경노선 추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회의에서 군지휘관들은 현재 북괴의 전략전술 무기체제및훈련양상을볼때 앞으로의 전쟁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선제기습공격으로 전후방 동시전장화와 단기결전을 시도할것이 확실하다고 결론짓고 이에 대비한 공세적 방어전략과 야간위주의 작전계획및연합작전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尹장관취임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金潤鎬합참의장、黃永時육군참모총장、李銀秀해군참모총장、朴魯榮연합사부사령관과 각군 주요지휘관및 직할기관장들이 참석했다.

言論基本法 심사 7人小委에 넘겨

文公委、與野 논란끝에

국회文公委는 17일 民韓黨이 제출한 言論基本法 개정안을놓고 정부측과 民韓黨의원들이맞서 논란을벌인끝에 7人小委에 이법안의심사를넘기기로했다.

이날 李振羲문공장관은 『언론기본법은 제도적으로 언론의자유와 그 신장을위해 발전적인 내용을 담은 法』이라고 밝히고 『제정당시 충분한 내용검토와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는또 현행 言基法이 言論의 法的보장과 취재源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進一步한것이라고전제 ▲개정안의 「國憲문란、사회안녕질서沮害」등의 표현은 오히려 현행법보다 더 恣意的인 해석이 가능하고 ▲언론도 마땅히 보호해야할 領域이 있으며 ▲언론기관의 등록취소를 법원판결에 따르라는것은 현실법체계상 어렵다며 民韓黨측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날 民韓黨의 辛相佑·林在正·李義永·康源采의원등은 질의를통해 ▲정보請求權의 실효성여부 ▲언론기본법제정당시 참여한 언론인들의 명단공개 ▲현행言基法제8條의 取材源의 보호조항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있는지 여부등을 물었다. 의원들은 또 ▲言基法제24條의 등록취소조항은 행정권의 지나친 肥大化와 이로인한 濫用의 우려가있는조항이아닌가 ▲언론의 등록취소는 司法的절차를 밟는 것이 三權分立의 원칙에 합당한것이 아닌가 ▲言基法 제정당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안된 부분은 없는가 ▲言基法이 언론을 보호하기위한법인가 아니면 정부비판을 막기위한법인가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美·蘇 高位접촉 계속키로

브레즈네프葬禮계기 會同 매우有益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蘇는 앞으로 두나라의 고위수준의 접촉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고 17일자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국무성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브레즈네프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루어진 안드로포프와의 회동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들은 소련의 새지도부에 대한 참구를 갖게됐다』고 말한것으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부시부통령、슐츠국무장관과 안드로포프、그로미코外相등과의 30여분간의 회동에서 정상회담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슐츠국무와 그로미코간에 대화 계속문제는 그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느쪽이 이회담을 제기했는지는 분명치않다고 지적했다.

슐츠국무와 그로미코외상은 지난 유엔총회때 7시간이나 만난 일이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접촉을 계속키로 한것은 소련의 새 지도부 탄생이후 美蘇관계개선의 첫 실질적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独立紀念館건립 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平澤郡고덕면해창리 산155번지 삼정펄프공업(株) 대표이사 전재준씨외 임직원一同=58만2천5백원 【平澤지국접수】

平澤 삼정펄프 공업 58만원
잠실 올림픽商街일동 42만원
서울 大陽産業(株) 37만원

▲동아건설산업(株) 잠실올림픽상가정화위원회(상인일동)=42만2천원
▲서울大陽産業(株)임직원一同=37만6천1백원
▲桐和計量器직원一同=15만원
▲在美제닌슐라 한인부인회(회장이종숙여사)=美貨2백달러
▲在美볼티모어 Bamboo House(사장 최인하)=美貨1백달러
▲在美독립유공자 曺秉華씨=美貨1백달러 【워싱턴지사접수】【〃】【〃】
▲在日本 東榮機工(株) 社長 申昌鎬씨=日貨5만円 【名古屋總局接受】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동작구지회(지회장 성낙구)=10만2천원
▲西大門區弘恩2洞34통주민회一同=10만원
▲소년한국비둘기기자 서울용마국교5년 김정한·방배국교6년 한진수군외 45명=10만3천2백원 【소년한국접수】
▲서대문구천연동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임선철)一同=10만5천원
▲清進洞 同心親睦會(회장 趙理衡) 회원一同=10만원
▲銅雀區舍堂4洞6통장 임태영씨외 1·2·3반주민一同=5만원、4·5반주민一同=4만원 【동부천보급소접수】
▲숭의여자전문대학 도서관학과 학생一同(2차분)=8만원
▲서울강동국교5학년 김종길=5만원 【소년한국접수】
▲城北區下月谷2洞23통주민一同=7만3천원 【장위보급소접수】
▲京畿道楊平郡砥堤面 玉峴里長 이강현씨외주민一同=4만3천원 【砥平지국접수】
▲천호3동 진성음악학원(원장 조재열)一同=4만2천9백10원 【천호보급소접수】
▲京畿道漣川郡官仁面민정당官仁面지부장 김성규씨=3만원 【官仁支局접수】
▲漣川郡官仁面中2里 유재순씨=5천원 【〃】
▲京畿道南楊州郡와부읍월문리171 대한예수교성결장로회 월문교회 최용선목사외20명=3만5천원 【덕소지국접수】
▲九老區개봉1洞김봉8반 주민一同=1만8천5백원
▲전남곡성군 송정음사서한29호 병장 송기성씨=1천원

<17일접수>

社告

文壇의 새별 기다립니다

'83新春文芸 作品모집

12월4일 마감

한국일보社는 내일의 한국 文壇을 이끌어나갈 참신한 文人들을 찾습니다.

1955년에 시작하여 해마다 뛰어난 새作家들을 배출해온 한국新春文藝의 83년도(29회) 작품을 다음과같이 모집합니다. 낡마다 시를 싣는 한국일보社가 오래전부터 국내유일의 良書페스티벌인 한국出版文化賞을 비롯하여 한국創作文學賞、한국飜譯文學賞등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세한 文學世界를 이끌고 육성해왔음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의 우리 文壇은 유능한新人作家의 등장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번 한국新春文學公募에서 문단의 여망이 실현되기를 독자들과함께 기원하고 싶습니다. 응모요령과 시상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種目및 원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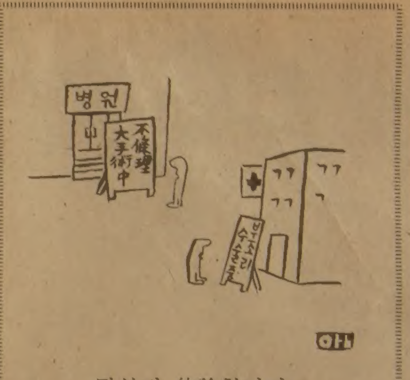
▲小說(2백자 80~1백장)……1백만원
▲詩(3편 이상)……50만원
▲詩調(3편 이상)……40만원
▲隨筆(2백자 15장 2편)……40만원
▲童話(2백자 30장 안팎)……40만원
▲戱曲(單幕·80장 안팎)……60만원

◇응모요령

▲마감=12월4일(土) 하오5시까지
▲보낼곳=서울鍾路區中學洞14번지 한국일보社 文化部(우편번호110)
▲주의사항=①겉봉투에 반드시 「신춘문예 응모작」과 응모부문을 밝힐것 ②원고의 맨첫장과 맨뒷장에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③응모작은 일체반환하지않음 ④우송할 경우 마감일자이전의 우체국소인이 찍힌것은 접수가 가능함.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당분간 休診합니다…

地平線

西紀2천년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전망이 제시되었다。16일 現代社會연구소는 『2천년대를 향한 韓國人像』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이에의하면 지난 80년을 기준으로하여 20년뒤인 서기2천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NP)가 4배로 늘어나고 1인당GNP는 지금의 3배인 4천8백달러로 先進國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이와같은 경제규모의 확대는 지난20년간(61년~81년)의 GNP 4·9배、1人當GNP 3·8배 신장과 비교할때 다소 낮은 편이다。그만큼 앞날의20년은 목표는 더 큰기지개를 펴게 하는 것이나 年平均 7%를 웃도는 成長率을 기록한다는 것이 국제경제여건과 전망등에 비추어 그리 만만치 않은 수치로 여겨지는 모양이다。같은 기간에 50·3%였던 人口증가율은 35%미만으로 잡고있다。비율이 떨어진것은 사실이나 그 억제가 앞으로도 우리의 큰 과제임을 알수있게한다。年平均 증가율을 최소한 1·5%미만으로 끌어내려야하기때문이다。▼20년뒤의 산업구조는 농수산업이 현재의 18%에서 10%미만이 되고 광공업은 36%에서 40%로、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46%에서 50%수준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에따라 고용구조는 농수산부문에선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고 광공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또 장차 약 10년간은 해마다 3%정도의 고용증대를이룩하면서 농수산취업자 비율의 대폭감소로 특징지어지는 구조적변화가 생길듯하며 그를 위한 工業化노력이 매우 세차게 전개되어야 할것같다。▼사실 과거 16년간(64년~80년) 우리는 67%라는 눈부신 고용증대를 이루었다。이는 캐나다(61%) 미국(31%) 노르웨이(31%) 같은 고도의 고용증가율을 보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다。한데도 취업자는 人口천명중 평균 3백60여명밖에 안된다。스웨덴같은 나라는 같은 기간중 고용이 겨우 14%밖에 늘지않았지만 평균취업자는 인구천명중 5백9명이고 오스트리아、독일 및 영국은 취업자가 도리어 감소(감소율각각 7·8%、4·7%、2·4%)했으면서도 4백명이상의 평균취업실상을 나타내고 있다。▼이렇게 볼때 앞으로의 20년간 우리는 人口증가율둔화와 고용기회확대를 위해 더욱거국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多子女를 福으로 치던 가치관은 이제 확실히 전도된것이다。儒學元祖인 中國에서까지 산아제한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충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창립 5 주년
기념
예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금번 본 교회 창립5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와 장로장립식(이창명)및 권사취임식(김순옥, 신순옥)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바랍니다.

○장로장립 : 이 창 명
○권사취임 : 김순옥, 신순옥
○시 일 : 1982년11월21일(주일) 오후4시

장소 : 토론토영락교회당
126 O'Connor Dr. (at P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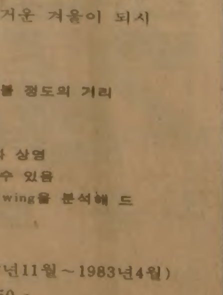
Indoor 골프장

긴 카나다의 겨울을 지루하지 않게 한자리에 모여, Swing을 배우고 연습하여 경제적이고 즐거운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①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정도의 거리
②실지 Ball을 사용
③주1회 이상 Lesson
③월1회 이상 골프영화 상영
⑤매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음
컴퓨터가 여러분의 Swing을 분석해 드드립니다.

※Member Fee(1982년11월~1983년4월)
$100.- 부부 $150.-

※초보자 특별 개인지도



1230 SHEPPARD AVE. W.
UNIT 14·15 DOWNSVIEW.

연락장소 : 298-3584 이기훈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印 시크敎徒 수천명集結"

아칼리黨지도자 "亞洲경기장엔 亂入말라"

軍, 뉴델리서 檢問강화

【뉴델리AP=聯】19일 개막되는 아시아경기대회기간중 매일 시위를벌이겠다고 선언한바 있는 인도 시크교도들은 16일 수천명의 시크교도들이 뉴델리에 집결했다고 밝힌것으로 인도의 PTI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시크교도들을 대변하는 아칼리黨의 지도자 프라카시·싱·바달과 구르차란·싱·토라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뉴델리에 집결한 시크교도들에게 평화적인 시위에는 참가하되 경기장에 난입하지는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한것으로 보도했다.

바달과 토라는 이날 한 시크교사원 집회에서 지지자들에 대한 이같은 지시내용을 밝혔다고 이통신은 전했다.

한편 인도보안군은 시크교도들이 뉴델리에 들어오는것을 막기위해 뉴델리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하고있으며 경찰은 뉴델리로 들어가는 도로상의 한 검문소에서 8백자루의 칼을 실은 트럭 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48시간 승용차와 버스등을 수색, 다수의 공기총과 2정의 소총, 그리고 1정의 카빈총을 포함한 갖가지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두共產大國 外相의 대좌 蘇聯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와 中共외상黃華가 16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있다. 이 사진은 TASS통신제공. 【모스크바16日AP聯=聯】

中蘇국경 배치兵力 減縮합의 가능성커

프라우다 편집인

【東京AP=聯】중공과 소련은 현재 양국국경에 배치되어있는 양국병력의 감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련공산당중앙위원이자 프라우다紙편집인인 빅토르·G·아파나스예프가 말했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日·蘇언론인회의에 참석하고있는 일본대표단과의 회견에서 中·蘇관계개선이 양국에 모두 유익한 것이라면서 그와같이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문제에도 언급, 아프간문제가 군사적으로는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하며 소련정부로서는 아프간이 『소련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비동맹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차 소련공산당 정치국과 서기국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것이냐는 질문에 유리·안드로포프신임공산당서기장이 신중한 지도자이기때문에 고위급인물이 관련된 인사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共同통신은 전했다.

「바」기구 頂上회담 내년1월로 延期

【프라하AP=聯】12월7일부터 9일까지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이 레오니드·브레즈네프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으로 명년1월로 연기되었다고 체코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16일 밝혔다.

그러나 12월23~24일로 예정돼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방상회의도 연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없었다.

蘇, 곧 高位職인사

안드로포프 政治局등 공석메워 체제강화

【모스크바UPI=聯】소련의신임공산당 서기장 안드로포프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정치국원자리를 포함한 당내고위급요직에 대한 일련의 인사를 단행하여 가까운장래에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할것이라고 서방전문가들이 16일 분석했다.

서방의 한크렘린 전문가는 안드로포프가 현재 자신의확고한 권력을 이용,『자기사람들』을 서기국의 요직에 앉혀 자신이 추구하고있는『변화』를 수행할 것같다고 말했다.

현재 안드로포프가 임명권을 행사, 충원할수 있는 정치국원자리는 최근 사망한것으로 알려진 아르비드·펠셰(83)자리를 포함하여 최고 5석이나 되며 또한 이와 동등한 숫자의 당내주요요직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수 있다.

서방외교분석가들은 안드로포프의 인사단행이 빠르면 내주에, 늦어도 이달 말에는 이루어져 이른바 『안드로포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현재 蘇공산당정치국원은 렘셰와 와병설이 나돌고있는 키릴렌코를 제외한경우 10명에 불과하며 지난2년여간 새로운 정치국원의 충원은 없었다.

소련공산당정치국원의 일정한 정원은 없으며 지난 30년간 9명내지 25명선에서 유동성을 보였었다.

蘇軍의 한반도 南侵위협있을땐

韓美日 공동작전필요

駐日美사령관

【東京=宋孝彬특파원】찰스·도널리駐日미군사령관(공군중장)은 한반도의 유사시상황을 북한의 南侵과 소련의 남침등 두가지로 상정하고 『소련으로부터 남침위협을 받았을경우 韓日양국과 駐日美軍이 공동으로 대처, 저지해야한다』고 말해 韓·美·日 3개국에 의한 집단방위안보구상을 처음으로 제창했다.

도널리사령관은 17일 발행된 일본財界잡지 『公研』12월호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단독으로 한국을 남침했을경우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될것으로 생각지 않으나 소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에 가담할 경우에는 한국군과 일본자위대, 그리고 미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韓·日양국군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 공동의 적과 싸울 준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리사령관은 일본이 소련에대한 중립론을 주장하면서 美蘇대결에 일본이 끌려들어가지 않는것이 좋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 있으나 일본이 세계제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상 미소간의 대립과 세계분쟁에서 초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85년 미자와(三澤)기지에 F16機를 대량배치키로 결정한것은 소련의 극동군증강에대한 대응조치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이 극동에 있는 자유세계우방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간回教徒 千여명 메카巡禮後 亡命

【이슬라마바드AP=聯】1천5백명의 아프가니스탄 회교신도들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회교성지 메카순례를 마치고 사우디와 기타 국가로 망명했다고 아프간의 종교관계자들이 16일 밝혔다.

다른 신도들과 함께 파키스탄으로 탈출, 15일 페샤워르에 도착한 아프간종교성순례국장 카지·모아메드·마프룬과 부국장 아유브·마이갈은 이날 페샤워르에서 파키스탄방송과 회견을 갖고 올해 성지순례에 나선 4천명의 아프간회교신도중 1천5백명이 사우디등 국외에 눌러앉았다고 말했다.

마프룬국장은 이들중 대부분이 영국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귀국하지 않은 것은 아프간정부의 회교탄압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伊 페르티니대통령 首相에 판파니任命

【로마ANSA=聯】페르티니 이탈리아대통령은 16일 헌법서열상 자신의 차석자인 아민토레·판파니상원의장을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조각을 위촉했다.

人事異動

民正黨

▲平澤安城지구당사무국장 李周相 ▲大田中區 〃 片廬完 ▲洪城禮山 〃 徐云錫 ▲青陽 〃 完九 ▲光州西區 〃 李學鎭 基範 ▲金陵尙州 〃 金泉 (15日字)

◇祈禱하는 教皇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8일 스페인방문 마지막날을 하루앞두고 홍수피해를입은 발렌시아지역을 방문, 루치聖女像앞에서 울고있는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고있다. 【알시라(스페인) 9日UPI=聯】

海外토픽

泰國에 과부村

★인구萬명에 8백여명

타이의 한 지방관리는 최근 자신의 관할지역안에 과부촌이 있음을 솔직이 시인.

타이 북부 수코타이省의 관리 솜포른·생칸씨는 앞서 한 국회의원이 폭로한대로 인구 1만명의 한지역에 과부가 8백명이나 된다고말하고 과부가 이렇게 많은 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첩을두고있기때문에 남자1명이 죽으면과부가 서너명이나 생기기때문이라고설명. 【방콕=AFP】

放送公社 기구改編

TV·라디오別로 專擔理事두기로

한국방송공사(KBS)는 3개TV와 6개라디오를 일괄 관장하던 편성·제작업무를 매체(채널)별로 나누어 전담이사에게 맡기는 기구를 18일부터 크게 개편한다.

李元洪한국방송공사 사장은 17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의 매체별 편성기획과 제작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기구를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주요개편내용을보면 제1TV안에 편성1국과 제작1국, 제2TV안에 편성2국 제작2국을 두고 제3TV와 교육라디오(FM)를 통합하여 교육방송을 신설, 전담이사회인제로 운영하며 라디오와 TV로 나누어져있는 보도본부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고 보도프로그램의 정밀화를 기하기위해 편집부를 편집실로 바꾸었다.

또 국제화시대에대비, 국제국의 해외방송기능을 독립시켜 국제방송국으로 승격시키고 증대되는 국제교류업무와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국제협력국을 신설했다.

이밖에 프로그램의 내용및 편성, 제작을 조정관리하고 매체운용을 효율화하기위해 방송운영국을 신설하고 잠정기구였던 올림픽방송본부를 올림픽방송운영본부로 공식화했으며 방송연구소를 방송연수원으로 개편했다.

한편예능국과교육국이 폐지돼매체별제작국에흡수됐다.

이번 개편으로 이사수가 7명(現4명, 정원은7명)이 되는등 곧 대대적인 후속인사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15人이상 고용업체 근로자檢診·의무화

民正, 法改正방침

民正黨은 15人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業體의 근로자에 대한 性病 정기檢診을 義務化하도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文炳珠의원이 마련한 이 개정안은 1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事業主는 직원에대해 채용시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때 性病에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있다.

民正黨은 또 현실정에 맞추어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등을 法定전염병에서 제외하고 소아마비 홍역 日本뇌염 예방접종의 경비를 정부가 부담토록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은 재정형편상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려운 입장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歪曲시정 25일발표

고또日公使, 外務部방문…설명答信

고또오·도시오(後藤利雄) 駐韓日本公使는 17일하오 외무부로 崔東鎭亞洲국장을 방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한 교과용圖書검정조사심의회 答申내용과 일본 文部省의 시정작업방침을 설명했다.

고또오공사는 이날 『인근국가간의 近·現代史에 관한 記述은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한다』는 지난16일 조사심의회 答申내용의 취지를 설명하고 『文部省은 이 答申에 따라 오는24일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며 25일 文部장관의 담화를 발표할계획』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고또오공사는 文部省의 역사교과서왜곡문제에관한시정문제와 관련, 지난15일 일시 귀국했다가 이날 귀임즉시 일본정부의 방침을 전달키위해 외무부를 방문했다.

民正, 韓明煥씨내정 慶北道黨 사무국장

民正黨은 17일 전국구의원직을承繼한柳■■慶北道黨사무국장후임에 韓明煥大邱市기획관리실장을내정했다.

農漁村 개발공사장 金泰卿씨 連任발령

정부는 金泰卿농어촌개발공사사장을 17일자로 連任발령했다.

記者의 눈

執權黨의 稅率번복

새해예산안은 法定時限인 오는12월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實名制파동으로 10여일을 얻은것도 잃은것도없는 與野간의 줄다리기로 虛送하고보니 국회財務委는 할일은 많고 시간은없다. 그런데도 문제는 좁혀지는게 아니라 점점 擴散되고 흐트러지는것같은 기분이든다.

정부와 民正黨은 實名制연기를 결정해놓고도 정부는 「정부案을 심의해주기 바란다」고버티고民正黨은 「국회의 심의에 맡긴다」고 시치미를 떼왔다.

그러다가 지난 16일 국회財務委 稅法小委 위원장을 맡고있는 民正黨의 金鍾仁의원이 小委에서 「實名制연기」를 공식확인하고 법인세율을 정부案보다 10%상향조정하겠다는 두가지의 주목할만한 民正黨방침을 공개했다.

實名制에대한 발언은 그렇다 하더라도 法人稅率인상에 대한 그의 발언은 바로 3일전 陳懿鍾정책위의장이 밝힌 「法人稅率 8%인상」 방침을 번복시킨것이란 점에서 관심을모으고있다.

實名制에 대한 黨論번복에 어리둥절해 있는 국민들은 法人稅率인상에 대한 두가지 黨論에 다시 當惑感을 느끼지 않을수없다. 陳의장이나金의원은모두 어느것이 진짜黨策인지 서로 미루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으니 混線은 더해가는 느낌이다.

「10%인상」이 앞으로 있을 對野협상용 카드라는 관측도 있으나 국민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협상정치라면 너무 拙劣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어느나라고 정치의 1차적책임은 執權黨에 있다. 집권당의 행동은 곧 他黨과 政局, 나아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때문에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한다.

이따금 야당이 誇張발언 과장공세를 펴주어도 집권당의 발언 발표는 國政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책임과 권위와 무게가 뒤따라야한다. 집권당의 公言이 권위와 무게를 잃었을경우 정치의 신뢰문제가 제기되게 마련이다.

더구나 정치적쇼나 술수는 「새정치」가 가장 경계하는것 아닌가.

이번 3일만에 번복된 民正黨의 法人稅率引上문제는 발언자가 平의원이아니라 집권당의 政策總師라는점에서 주목을끌고있다.

정부·여당이 實名制를연기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리고도 주춤하고있는것이나 稅率인상도 黨策을 결정해놓고 3일간격으로 2중공언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어느방향으로 갈지 어지러울수밖에 없는것이다. 국민은 솔직하고 정정당당한 자세를 執權與黨에게바라고 있는것같다. 【李以春기자】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現代史의 主役들★

<18>

領導者論

「經營」이상의 힘·비전·靈感갖춰야

激動期엔 最善·最惡의 지도자 同時배출

위대한 영도력이란 힘과 비전이 고도로 요구되는 독특한 형태의 기술이다. 오랫동안 미국내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이나라가 정말로 필요로하는건 1급경영자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대규모 기업을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경영한 실적을 보인 사람이면 된다는 믿음이다. 이건 핵심에서 벗어난 생각이다. 경영과 영도력과는 별개문제다. 『경영자들은 일을 바르게 해내는걸 목표로 삼는다. 지도자는 올바른 일을 하는것을 목표로 삼는다』

기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영도력은 그 기교이상이다. 어떤 의미에서 경영이 散文이라면 영도력은 詩다.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상징과 이미지 또 역사를 이끄는 힘이 되어줄 촉매제같은 아이디어를 다룬다. 사람들은 理性으로 설득당하고 感性으로 감동을 받는다. 지도자는 그들을 설득시켜야 하고 감동도 시켜야한다. 경영자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한다. 지도자는 모레를 생각하지않으면 안된다. 경영자는 過程을 그린다. 지도자는 역사의 방향을 그린다. 따라서 경영을할 대상이 없어지면 경영자는 쓸모가 없어진다. 하지만 권좌에서 나온 지도자에겐 여전히 추종자들이 따른다.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하자면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한다. 지도자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그로하여금 전국민에게 영감을 줄수 있도록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민중은 지도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 대중은 그러면서도 지도자에게 무관심한 경우는 드물다.

지도자는 정의로운것이 무엇인가 아는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도자는 역시 올바른 일을 할수있어야 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는 판단력과 지각력없이 내심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비전이없어서 실패하고 만다. 올바른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해낼수없는사람은 무력해서 실패한다.

지도자를 사로잡는 대의명분은 무언가 새로운것을 창조하거나 낡은것을 보존하는것일수도 있다. 또는 명분을 가진수도 있다. 상대방 지도자들이 이룩 총동하는 명분이 약하더라도 지도자가 강력하면 훌륭한 명분을 가졌으되 약한지도자를 앞지를수도 있다. 나쁜 명분이 좋은 명분을 짓누를수도 있다. 역사를 예측도하고 또그때문에 심판도 할수있는 불변의 법칙은 없다.

명분이란 종종 바로 지도자들 자신처럼 세월이 지나 회고해보면 실상과 달리 보이기도 한다. 때때로 누가 승자냐에 따라 심판이 좌우된다. 역사가들은 지도자들을 못지않게 명분면에서 패배자보다는 승리자에게 더 잘 대해주는 경향이 있다.

2차세계대전후 지금까지 세계는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더 크고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대사건은 위대한 지도자를 출현케 한다. 격동기는 또한 최선 최악의 지도자를 동시에 배출한다. 후루시초프는 강력한 지도자이긴 했으나 위험천만한 힘을 가진 인물이였다. 毛澤東은 삶을 움직일만큼 대단한 역할을 해냈으나 동시에 수백만 인명을 짓밟았다.

『역사를 익히지않은자는 그죄값으로 역사를되풀이한다』는 말이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저마다 과거를 연구했고 그과거로부터 배웠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얼마나배울수 있는가, 그정도에따라 세계는 장차 전진할수있는 보다나은 기회를갖게될수있을것이다.

역사의 어느 한대목은 오직 권력그자체가 목적이되어 그것을탐하는 독재자들이 차지해왔다. 하지만 정상에오른 지도자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분명하게말할수있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다른사람보다는 더나은 목적에 봉사할수있다는 믿음을 갖고 권력을추구했다.

내가 앞서 다룬 지도자들중에서 1차원적인 사람은 하나도없다. 복합적인 동기를 갖지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사로운 세력부식만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려했던 사람은 역시 하나도없다. 몇몇 수카르노같은 사람은 육욕에 너무 깊숙이 탐닉된 인물이었다. 그런가하면 후루시초프나 모택동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집권한 정책때문에 비롯된 대중의 고통에 너무 냉담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모두를 자기자신만을 위하는것이상의 목적들을 갖고있었다. 옳든 그르든 그들은 저마다 대의명분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믿었다. 무언가 자기는 개선을 시켰다는 흔적을 역사에 남기기를 원했다.

개인도 그렇지만 몇몇 지도자들은 당대 다른 지도자들보다 탁월하게 돋보인다. 지도자를 높이로 은유하는건 어쨌든 절묘하게 바로 표현하는것이다. 지도자들은 세속의 현실이나 당장 눈에 띄는것 이상을 내다볼수 있어야한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그들에겐 필요하다.

지도자들이란 자기나라를 끌고나갈 의지력과 권위를 동시에 가진 인물들이다. 1930년대 드골은 미처 그런 권위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권위를 갖추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질을 선보였다. 맥아더는 이자질을 1940년대에 갖추고 있었다. 만약 드골이 이 권위를 보다 일찌기 갖추었거나 영국의 처칠이 이권위를 지녔더라면 유럽의 역사는 달라졌을것이다.

또 세계제2차대전은 일어나지않았을지도 모른다. 드골과 처칠은 1930년대에 당시 상황보다 훨씬 앞을내다본 인물이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들 두사람이 옳다는 사실을 유럽은 미처 터득하지 못했다.

◇80년 팔레비이란王장례식때 파라王妃와 사다트 이집트대통령과 나란히 걷고 있는 닉슨。

「올바른일」알아도 못하면 失敗

영화와 텔리비전을 통해 미국 자체의 인상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할리웃의 극작가들은 권력이라면오금을 펴지 못하면서도 군부거나 실업계 정계 가릴것없이 집행부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무릇 집행부는 환상의 땅을 휘청대며 헤맬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잔인한 사람으로 보인다. 지도자는 가상 또는 이상세계 속에서 사는것처럼 일할수는 없다. 지도자는 실재하는 불완전한 세계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지도자는 주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몰인정하게 무관심한 인상을 준다. 불행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노력을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극적효과가 덜나타날수는있을지 모른다.

법과 소시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아서는 안된다고 별난 엉쳐버가 언젠가 코멘트를 한일이 있다.

우리는 싫은 업적을 놓고 지도자에 영광을 준다. 그러면서도 그업적을 어떤 방법으로 쌓아올렸는가에 대해서는 못본체하는쪽을 택하는 경우가 자주있다.

실제세상에서는 정치란 바로 타협이고 민주주의란 바로 정치다. 정치가가될 사람은 먼저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어야한다. 또 지도자는 국민과 국가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다루는 것이지 마땅히 어떤 상태가 되어있어야한다는 명제를갖고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끝〉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864-9347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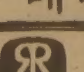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리아 하우스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창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신
(R) (416)633 7892 (David Chae)



"言基法은 운용이 더 重要"

——國會文公委 질의·답변

언론을 制度·규격化 말아야 (질의)

충분한 討議거쳐 制定됐다 (답변)

▲金容鈞전문위원 검토보고=民韓黨이 제출한 언론기본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포괄적인 언론의 정보청구권의 적용배제를 구체화하도록 하고②違法한 표현물의 압수요건을 강화하며 ③등록취소등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④편집인등의 형사책임을 벌금형에 국한하도록 하는 것등이다.

개정안제6조(언론의 정보청구권)는 현행법에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중인직무의 합리적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될 때」로 되어있는 것을 「좌절 또는위태」로 개정함으로써 「곤란」을 삭제하고 있다.

이경우 법률상의 용어로서 「곤란」이나 「위태」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法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개정안제7조 (違法표현물의 압수)는 현행법이 정기간행물과 방송물의 압수요건으로서 「몰수될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있는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國憲을 문란하게하거나 사회안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있는 경우」로 개정하고 있다.

현행法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로 국한한것은 언론에대한 우대조항으로 보아야 하며 압수의경우도 司法的통제를 보장하고있는만큼 개정의 實益이없다고 판단된다.

개정안제8조(취재源의 보호)는 현행법이 取材源의진술을 거부할수없는 사유로서 「범죄를 구성하는내용이 공표된 때」로 하고있는 것을 「장기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로 개정하고있으나 實定法上 언론에의하여 범죄를 구성할수있는 경우는 개정안과 같은 경우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개정의 實效性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개정안제24조(등록의취소)는 현행법이 「문화공보부장관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는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관청에서 그 등록의 취소權을 인정하는 것은 法체계상 자연스러운것이며 개정안과 같이 司法府의 사전판결을 거쳐 行政행위를하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을 무리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三權分立의 원칙에비추어볼때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개정안제53조 (편집인등의 형사책임)는 현행법에 故意일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重過失일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 輕過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않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를구성하는 사실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있다.

▲李義永의원 (民韓) 질의=언론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자로서 착잡한 심정으로검토보고를 들었다. 民韓黨의 제안이유와 이렇듯 거리가멀수있는가. 검토보고라면 최소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고려돼야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전면否定되고 있다.

▲李振羲문공장관답변=언론기본법은 지난80년12월30일에 立法會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됐다.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토의과정을거쳐 제정된것이다. 아직껏 운영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既存의 신문통신에 관한 法등을 통합, 외국의 입법例를 충분히 검토해 발전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공청회를 가지지는 않았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것이 아니라 既存의 산만한 관계법률을 통합, 하나로 法체계화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왔다.

▲林在正의원=언론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언론계인사의 명단을 밝혀줄것을 거듭 촉구한다.

▲李장관=제정당시 贊反論이 있었지만 입법이 조사를 못했다. 언론기본법은 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신장에 도움이되도록 발전적내용을 담고있다.

현재까지 일선기자들이 정보청구권을 이용해서 정보를 요청한적은 단1件도없다.

▲李義永의원=일선기자가 취재를 하려하면 정부는확정된것이 아니기때문에 보일수 없다고 거절하는경우가 허다하다.

▲李장관=「國憲을 문란시키고 사회안녕질서를해칠때…」란 개정안의 압수조항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오히려 현행법보다 더 恣意的으로 해석할 요소가있다고 본다.

▲辛相佑의원 (民韓)=言基法개정취지는 언론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언론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수긍을 해야한다. 언론을 제도화·규격화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정부는 언론인 스스로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지도록 도와야 할것이다.

▲李장관=언론도 보호해야하지만 언론이외의 보호할 영역도 많다. 국가전체의 형평의 원리를 지켜야한다고본다. 등록을 받는것은 행정처분이고 이의취소는 법원의관결에 따르라는것은 현실法체계상 어렵고 三權分立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

▲林在正의원=등록취소는 신문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권에 의해 등록, 말소가된다는것은 무리다. 三權分立정신은 三權이 어느일방의 권리남용을 상호견제하자는 뜻으므로 이는 3權分立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辛相佑의원=언론자유의 요건중에 편집권의독립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경영자측에서 편집, 人事權을 장악해 언론본연의길을 가기가 어렵다.

▲李장관=언론의 중요한 公的책임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으면 취소事由에 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言論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에 관한 법의 운용은 장관 자의로 할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一問一答하는 李文公 17일 국회文公委에서 李振羲문공장관이 民韓黨이 낸 언론기본법개정안심의와 관련, 의원들과 一問一答을 벌이고있다.

메아리

大서울

런던에는 두개의 「씨」가 있다. 하나는 「시티」라고 불리는 시티·오브·런던 |직역하면 런던市요, 다른 하나는 시티·오브·웨스트민스터다.

만일 어떤 관광객이 버킹검宮殿을 보고, 넬슨紀念碑가 있는 트라팔가廣場을 거쳐, 세계 금융의 한 중심인 롬바드街에 이른다면, 그는 한 도시에 있으면서 市界를 건넌 셈이 된다.

물론 그 관광객은 자기가 市界를 건넌다고는 인식 않는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 사는 엘리자베드女王이 그 市界를 넘자면, 런던市長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절차는 런던市가 王權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전한 역사를 반영한다. 이런 전통이 있으므로해서 런던市는, 비록 그 구역이 직경 1㎞, 상주 인구 1만명 미만이지만, 특수한지위를 차지하고, 그 市長자리는 영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중의 하나로 꼽힌다.

흔히 말하는 런던은 시티와 웨스트민스터를 아우르고, 그 두개의 「씨」를 에워싼 都市圈이다. 그것은 마치 양파와 같다. 양파가 여러겹이듯이, 한마디로 런던이라 불리는 도시는, 하나가 아닌 여럿이다.

먼저 런던市를 중심한 반경 약10㎞는 카운티 (州)·오브·런던이다. 27개의 자치단체 (버러=區)로 구성되며, 웨스트민스터는 그중의 하나다.

그바깥 24㎞가 그레이터·런던, 大런던이다. 이구역은 보통 런던警視廳이라 번역되는 스코틀랜드·야드의 관할지역과 일치한다. 여기까지를 합친 인구가 약7백만.

런던의 多層性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인구 6백만의 給水구역은 「上水道런던」으로 구별된다. 首都圈교통을 종합관장하는 「交通런던」도 따로 있다. 그인구는 1천만명이다.

이처럼 런던은 구조가 복잡하다. 單核都市 서울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이해되지않는다.

그러나 런던의 지금 모양은, 런던의 역사를 體現할뿐 아니라, 한때 세계최대를 자랑했던 巨大都市의 문제, 그에 대한 處方의 결과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러 겹의 런던」은, 그래서 서울에 投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것은 말고, 손쉬운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자.

서울은 地下鐵과 電鐵이 갈라져 있다. 그 요금수입은 서울市와 철도청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精算한다. 버스는행정구역을 따라 시외·시내버스의 구별이 있다. 운영이 복잡하고 불편할뿐더러 종합적 교통대책을 세울수가 없다. 서울市界를 넘어선 「交通서울」이란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가.

水道도 마찬가지. 다같은 八堂물을먹으며, 水道행정은 서울 따로, 인접도시 따로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역시 「水道서울」의 발상이 필요하다.

「大役事」라 이르는 漢江개발계획을 세우며 사업대상은 서울관내뿐이다. 春川에서 물을 흐리면, 서울의 漢江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서울만을 따로 떼내 「아랫물」맑기만을 기다리는것이 지금의 환경대책이다. 서울市界를 넘어서, 「윗물」까지맑게 하는 漢江流域단위의 정화체제가앞서야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다시 말해서, 大런던보다 더 커진 巨大都市 서울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首都圈전체에 깊이 연관된다.

이에대한 대처는 서울市 아닌 大서울의 발상을 갖추고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도시행정아닌 都市圈행정, 廣域행정체제가 아쉬운 것이다. 商工會議所의 韓國經濟연구센터가 제기한 서울의 廣域행정案(崔相哲서울大교수팀=「首都圈機能效率化와 整備方向」) (한국일보 17일字4면)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다.

崔교수 팀의 보고가 지적한 대로, 같은 先例는 大런던만이 아니다. 근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카운티, 캐나다와 필리핀의 메트로폴리탄·터론토, 메트로폴리탄·마닐라등이 있다. 또 기능적인 것으로는 뉴욕의 지하철·버스·터널·항만·철도등 모든 교통체계를 관장하는 뉴욕港灣公社가 있다.

이런데 비추면, 혼자 버티고 선 서울의 행정체계는 너무 斷片的이다. 일반 地方行政에서 따로 떨어져 監督체계를 달리하는 特別市制가 서울을 더욱 고립시킨다. 경우 首都圈행정협의회란 것이 있긴는 하나, 有名無實을 지나쳐 無名無實이나 다름없다.

여러차례 거듭된 首都圈정비의 실패를 생각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정체계의 재검토=廣域化는 꼭 필요하다. 서울뿐 아니라, 都市化 물결속의 우리나라 地方행정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海外토픽

美國民 81%가 알콜中毒症

★3家口중 1家口가 不和

미국의 가정은 3가구에 1가구 꼴로 음주때문에불화를 빚고 있으며 전체미국민의 81%가 알콜중독증을 국가적인 중대문제로믿고있다.

최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천만명의 미국인이 알콜중독증에 걸려 있거나 알콜중독증에 걸린 가족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는것.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미국민의 79%는 알콜중독증을 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UPI】

同居女人구타被訴

★女性사랑하는方法저술자

「여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금년 30세의 미첼·모르겐스턴씨가 동거여인을 구타한 혐의로 피소됐다.

모르겐스턴씨는 지난해 8월 동거중인 에벨·파크스양(27)과 아파트 앞에서 언쟁을 벌이던중 그녀의 뺨을 구타했으며 이로인해 턱뼈가 골절되고 고가 부러진 파크스양이 35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뉴욕=UPI】

◇올해 미스 크레멘타인

해마다 수확기에 열리고 있는 미스크레멘타인(오렌지의一種)선발대회에서 女王으로 선발된 사빈느·보트양(17)이 바구니에 담겨진 채 포즈를 취하고있다. 【키스톤=聯合】

승려養成所 개설

★中共서 2백여명 登錄

지난1966~76년의 「문화혁명」기간동안 종교가 무자비하게 탄압됐던 중공에서 최근 승려양성소가 개설됐다.

관영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南京에 1년수료과정의 승려양성소가개설됐는데 2백명의 예비승려들이 등록을 마쳤다는것. 【北京=AP】

과중한激務로死亡

★鄧小平 브死因결론내려

中共최고실력자 鄧小平은 故레오니드·브레즈네프前蘇聯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議長이 자기보다는 젊은데도 자기보다 과중한 직무에 시달렸을것이라고 술회했다고.

中共을 방문중 鄧小平과 만난 고야나끼·이사무(小柳勇) 日本社會黨부위원장에 따르면 브레즈네프의 사망원인은 鄧자신보다 과중한 격무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을내리더라고. 【北京=AP】

「美國版 中東평화」 새로운 突破口로

美의 「한국軍派兵」권고 背景

이·아랍圈과도 원만한 關係

두터운 友誼作用… 조건등 긴밀협의예상

◇레이건과 제마옐의 熟議 지난10월말 워싱턴을 방문한 제마옐레바논대통령(左)이 레이건美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있는 모습. 레이건대통령은 이회담에서 한국군의 레바논파병을 제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정부의 한국군파병요청이 알려진후 워싱턴의 외교가에서 定說처럼된것은 레바논의 요청이 미국의 권고에의한것이라는 점이다.

국무성이 두차례의 코멘트를 통해 파병요청문제는 레바논과 당사국과의 문제라는것을 강조했지만 이점설은 도리어 현실성있는사실로 모습을갖추가고있다.

그러나 이마당에서 궁금한것은 과연 미국이 권고했느냐 아니냐,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등의 철수와 안정유지를 레이건대통령의 중동평화안수행의 최우선 전제요건으로삼고있는 미국이 선뜻 그들의 해명을 필요한만큼 증파하지못하고 왜 한국등6개국에 파병요청을 권고했을까하는 점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국내적인것과 국외적인것으로 나눠 생각할수있다.

먼저 국외적인것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대로「미국판 중동평화」라는데서 탈피시켜보자는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평화방안을 내놓고 하비브·드레이퍼 특사를보내 휴전성립에서 철수에이르는 문제를 도맡아하면서도 미국의마음한구석에는 중동의 평화가 우선 미국의이익에 직결되는 것이긴하지만 동시에 세계의이익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생각이 도사리고있다.

중동평화라는 果實을 향유하려면 그만큼 기여해야하며 그길이 다국적평화군의 일원으로서의 참여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다분히 평화군참여국쪽을향한 생각이지만 레바논문제 당사국들을 겨냥한 측면도있다.

이스라엘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미국 혼자서 아랍측과 시리아, PLO 등을 설득 내지 제재하는것보다 그야말로 多國이 일치된 행동으로 이들에게 평화를 종용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國外的인것이 평화군의 多國化와 미해병을 쉽사리 증파하지못하는 간접적인 동기라면 국내적인 면은 좀더 직접적이고 절실한 것이다.

레이건대통령이 지난 8월에 레바논의 휴전성립으로 PLO가 드디어 12년만에 레바논땅에서 철수를 시작할때 8백명의 미해병을 1차로 파병하면서 백악관의 로즈가든에 나와서 한말은 무슨일이 있든지 30일이상 주둔하지 않을것이란 것이었고, 실제 30일을 채우지않고 이들은 철수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스런 파병에도 당시 미국내에서는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다.

우려의 골자는 2천명의 군사고문단이 50만명의 파병으로 늘어났고 5만8천여명의 전사·실종자를 낸 월남전참여의 선례였고 이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이기도했다.

1차에 비해 팔레스타인 난민수용소의 대량학살로 재투입된 2차파병은 규모도 1천2백명으로 늘었을뿐아니라 주둔시한도「외국군의 완전철수시까지」로 여유를 갖춘 것이었다.

현재 미행정당국이 미해병의 철수시기에대한 질문에 한결같이 내놓고있는 대답은 연말을 목표싯점으로 잡고있으며 그목표싯점은 미행정부의 희망이라는 얘기의 되풀이다.

한국등의 파병이 실현된다면 연말쯤 현지에 도착할때이고 이때 정작 미군은 빠져나온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않는다.

미국의 전시동원법은 대통령은 해외에 병력파병시 60일을 넘길경우 의회의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연말목표란 다분히 이런제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사건후 재파병된 현수준의레바논주둔 미해병규모는 물론 의회쪽에서 우려는 하고있지만 불가피성은 인식되고있다.

이 불가피성이 인식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레이건대통령으로서는파병후60일을 넘길경우를 상정, 의회의동의를 받는것이 급선무이며 이런것들이 위에열거한 여러가지 측면과합쳐 미해병의 증파보다 한국등의 참여확대를 권고하게만든 배경일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런 조심스런 미국의 입장을 반영이라도하듯 그간 1천2백명의 미해병들은 베이루트남쪽 공항지역 경비에 거의 한정된임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4월에야 비로소 東베이루트로 순찰을 확대한 상황이다.

그러면 독일과같은 분단국인 한국이 레이건의 권고에 포함된 배경은 무엇인가.

미국내에서 레바논정부의 대변기관적인 레바논홍보조사센터의 가산·하십씨의 말처럼 한국의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와 이스라엘·아랍측과의 원만한 관계, 한국군의 능력등에 기인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레바논의 참여요청을 받은 6개국중 이날 可否간 반응을보인 나라는 하나도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영국은 포클랜드주둔문제로 파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형식이든 다같이 월남전에 참전경험이 있는 호주 스웨덴은 파병가능성이 높은나라로 워싱턴의 외교가에선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레바논이 기독교 회교도의 반목등 국내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 아랍 PLO 등의 오랜 분쟁지역이었다는점, 이런 지역에 대한파병에 따르는 한국군의 피해위험과 파병섭취도, 사우디등 아랍권의 기존경제진출에대한 영향과 새로운진출가능성의 문제, 분단대치상황임에도 외국에 파병했다는 국제여론 문제등 득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하는것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측의 문제이다.

하지만 최종결정이 파병으로 낙착되는경우 적어도 파병결정이 발표되기전 한국측은 아마도 레바논측보다는 미국과 파병에따르는 부수적인 문제, 조건등에관해 긴밀한 협의를갖게될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더우기 레바논측이 경제사정의 황폐화를 이유로모든파병경비를 자국부담하기를 원하고있어 이런협의는 외교경로를 통해韓·美간에 불가피하게 있을것으로 관측되고있다.

월남전과는 똑같은 예가 되기어렵겠지만 파병에는 적어도 수송에서부터 장비·탄약등 보급지원, 장병들의 봉급아닌 수당에이르기까지 많은 경비문제가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병의경우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군으로서의한계, 대치지역주둔기각 파견병력의 규모등도 중요한 사전협의의 대상으로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요청은 미국의 권고로 레바논정부에의해 이뤄졌지만 미국은 이미 한국측에 미국의 파병희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파병에따르는 문제에관한 미국전해의 일부도 동시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레바논은 4천3백50명의 美·佛·伊평화유지군과 레바논남부 이스라엘국경 지역에 주둔해있는7천명의 유엔군외에 약1만명의 평화유지군이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나라들로부터 충당되기를 희망하고있다.

이들은 이 2만여평화유지군이 레바논내에있는 이스라엘군 시리아군 PLO 잔존세력의 완전철수를 감시·수행해주고 그사이 레바논은 현재 1만2천명의 정부군을포함, 2만명인레바논군을 4만명수준으로 육성,이군대에의해 레바논내의 치안유지와 주권이회복되는 싯점을 약2년간으로 잡고있다.

【워싱턴=李文熙 특파원】

LEON'S 가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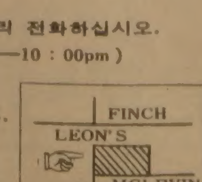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投機억제」「景氣계속」두토끼를 다잡아야 하는데…

不動産정책 妙方없을까

紙上 公聽會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처방이 단순한 對症요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기는 근절시키되 주택경기는 계속 부양시킬묘안은 없을까. 정부는 연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투기를 막을수 있는 확실한 예방장치도, 서민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지못하고 있다.

신규아파트분양을 둘러싸고 투기가 성행하던 서울開浦,狎鷗亭지역등은 당국의 단속이 착수된후 거래자체가 중단, 숨을 죽이고 있을뿐 엄청나게 올라붙은 프리미엄시세는 여전히 변동이 없이 관망만 하고있는 상태.

확실한 투기억제대책없이 한때의 솜사리 단속만으로 흐지부지했다가는 언제라도 다시 불붙을 소지를 그대로 안고 있는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있다. 그렇다고 지나친 강공책을 쓰면 이제 겨우 동면에서 깨어난 주택경기가 다시 잠들어버릴 우려마저 없지않다.

그러나 통화·금리정책등 투기가 일어날수 있는 근본소지를 덮어둔채 주택정책주무부처인 건설부가 분양·청약제도와 같은 지엽문제만 거론하고 있어 투기억제를 위한 뚜렷한 묘안이 없는 형편. 투기억제시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0순위제폐지, 분양시기조정, 가격자율화문제등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그때문에 일반국민들만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주택정책, 주택분양제도, 분양가격문제등 주택청약제도와 주택관련 稅制, 금융제도,부동산소개업면허제도, 그리고 투기억제를 위한 의견등을 전문가들의 지상공청회형식으로 모아본다.

◇金儀遠씨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현행 주택분양제도상의 문제점으로 ①당첨권과 분양권의 전매가 성행할수있는 여지가 많고 ②민간주택이 주택금융제도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현행제도의 개선을위한 代案으로 선착순위제도를 택하되 이것을 주택구입저축제도 (적금)및 융자제도와 연결시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분양가격을 입지조건이나 위치, 층수및 건설업체공신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있는데에 왜곡거래의 소지가있다.

분양가격을 자율화하고 대신 초과이윤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하되 그 방법은 국민주택채권을 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가구2주택이상의경우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획일 적용함으로써 주택거래를 위축시키고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소득층의 경우 큰부담이 되고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통합운영하고 주택의 보유기간과 전매차익에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공용주택은 세율을 크게 내리고 주택규모에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있다.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관련, 현행 주택공급제도상의 문제로서는 「自家소유」에대한 집착, 관념을 탈피시킬 「거주」개념과 이에 따른 주택의 일반화를 위한 정책시도가 미흡하다.

지역이나 직장단위의 自助주택조합과 소규모 주택업자보다 대형지정업자중심의 공급체계에 거의 전부를 의존하고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금융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에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융자조건, 비율도 크게 개선돼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거나 가격조작행위를 하는 복덕방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도시만이라도 중개업허가제를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제도, 거래신고의무화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李太敎씨 (부동산평론가)

주택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따라서 주택업자가 장기계획에 의해 주택을건설, 공급할수없고 실수요자도 안심하고 집을 사거나 팔기가 어렵다. 호황일때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불황기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너무 두드러진다.

주택행정을 총괄하는것은 건설부인데도 경기가 호황이 되면 세무조사반이 가서 불을 꺼버리는 식이 되풀이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주택행정을 이끌어가는데 건설부가 사실상 힘을 갖고있지 못한 형편이고 따라서 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려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모여 예컨대 부총리직속의 독립기구 같은 것을 생각할수 있다.

주택공급의 확대,주택난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지어 민간업자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대신 민간업자도 일정비율이상 서민주택건설을 의무화시키고 특히 住公,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주택만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청약제도에 투기의 소지나 부작용이 있다고 다른 부작용을 부를수도있는 지엽적인 방법의 전환을 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전매투기행위의 대상으로삼는 경우 분양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강경하고 확고한 투기조절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정기간내 전매금지조치같은 방법도 검토할만 하다. 0순위제폐지는 기득권자에대한 처리보장 문제와 정책신뢰라는 면에서 대안없는폐지는 반대한다.

분양가격문제는 서민주택규모는 정부가 개입, 최소한의 기업이윤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그치고 일정규모이상 고급아파트는완리성있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완전자율화는 현재의 수요공급여건상 주택가격의 앙등우려만 큰것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부동산거래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 무자격의 사에게 생명을 맡길수 없는것처럼 한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재산을 무자격 복덕방의 손에맡겨 방치해 둘수는 없다.

현재의 부동산세제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지는않는다. 다만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개인이 투기목적으로 매입, 소유하는것은 보다 重課하는 방향으로하고 개발이익이 모든사람에 고루돌아갈수있는 세제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양도세제중 투기지역에 대한 중과는 더 강화하는 한편 일반지역이라도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활용하면 투기는 막을수 있으리라본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투기소지를 없애가려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 여건을 고루 여러지역으로 분산조성하는 정책뒷받침과 공신력있는 업체가 여러지역에 대량공급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갈수있는 부동산이외의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유도한는시책이 필요하다.

실수요자가아닌 사람의 투기참여기회를 박탈하기위한세무행정, 자금출처조사의 강화,실시투기거래동향조사가 있어야 할것이다.

주택·토지는 투기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확국민 홍보와의식개선이 아쉽다. 원칙론적이지만 공급의 극대화, 수요의 실수요자化, 공인중개사를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이란는 3가지 요건이 실현돼야 부동산투기는 해결될수있다.

◇李相球씨 (주택공사 副사장)

과거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분양신청을 할수있었던때 1백몇십대1로 인산인해를 빚던 폐단을 생각해보자. 장기 저축자에게 우선권을주고 공급질서를 바로잡는데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본다.

이런의미에서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근간은 그대로유지하는것이 옳다고보며 다만 선매청약저축제도의 원래취지를 살린다는뜻에서 희망주택을 세분해서 꼭 그 주택型별, 지역별, 난방형식별 기타에 대해서만 신청할수 있는 제도가 실현됐으면한다.

분양가격문제는 9명의 투기꾼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은 저렴하게 공급하는것이 좋겠다.

다만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은 저소득층서민이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 주택가격은 실세화시켜 분양토록 허용하고 대신 차익금은 이것을 환수,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유통거래질서를 바로잡고 복잡한 상업사회에 맞춰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개업소의 허가제가 필요할것이다.

다만 사회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지금 당장의 전면실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다.

특히 이기회에 말해두고 싶은 것은 부동산거래에관한 감독, 규제업무는 토지·주택과 관련한 중요정책의 일부인만큼 현재 토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나 기관에 일원화시킨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리가 있는 곳에 투기가 발생한다. 일수관리업무를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것 같은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투기를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폭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일정규모이상 아파트는 실세분양제도를 실시한다든가 稅源을 철저하게 발굴해서 환수하는 것이 긴요하다.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투기억제대책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투기억제에 급급한 나머지 주택산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건설, 공급부족현상이 가중돼 또 다시 주택가격이 앙등, 투기가 살아나는 악순환만은 되풀이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택공급이라는 면에서 임대주택의 일반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나 국민의식개혁작업과 임대주택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鄭鎭宇씨 (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장)

주택정책에 통일성이 없고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행정부처가 너무많다.

임시방편적인 정책결정보다 누구나 믿고 따를수있는 장기정책을 세워 일단 수립된 정책은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계획대로 끌고 가는것이 좋겠다.

부동산거래나 시세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 파악하고 통계자료수집을 하는 전담부서도 필요할것같다.

주택청과 같은 단일감독부서의 설치와 상설거래동향 시세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유지를 싼값에 과감하게 택지로 개발하고 주택임대산업의획기적육성방안도 검토할 문제이다.

현행 주택분양·청약제도는 저축증대, 과열청약사태방지라는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다.

다만 무주택서민에게 해당되는 선매저축중 우선 순위를 저축금액이 많은 자에게 준다는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정부지원을받는 지정업체의 자유분양방법은 문제가있다.

공공주택의 무조건 전매금지보다는 무주택자간의거래는 용인하는것이 오히려 가수요현상을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업체에도 일정비율이상 소형아파트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할것이다.

현행 민영주택청약예금은 아파트계약금수준으로 대폭 올려야한다.

공공주택을 有주택자(가수요·투기꾼)자 구입했을때는 실제로 환수조치해야한다.

민간업체나 협회로 하여금 아파트분양대행을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분양가격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서민용아파트나 주택에대해서는 분양가격규제가 필요하나 고급아파트의경우 분양가를 자율화하는것이 좋다고본다. 다만 고급아파트 가격자율화로 생기는 차익은 서민주택건설용으로 돌려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일반화되도록 유도하고 재벌그룹이나 해외건설업체를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행 부동산관련세제는 너무자주 바뀌고 임기응변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 法을 만들었으면 공평하게 집행하는 제도와 행정이 따라야한다. 어떤 경우에든 특혜와 불공평은 없어져야 한다.

현행 1가구1주택 양도세과세규정을 고쳐 1가구1주택이더라도 액수에따라 일정기초공제액을 빼고는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억짜리 집한채를 2억에 팔아 1억이 남아도 세금을 안내고 1천만원짜리집에 살면서 1가구2주택이라고 해서 1천만원 집한채를 2천만원에팔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불공평은 시정돼야 한다.

6개월만 살면 된다는 규정때문에 판매자의 탈세행위를 매입자가 용인해 주는 사례도 허다하다.

각종 과표를 통일해서 단순화해야하며 공인계약서의 도입으로 실제거래가격등기를 유도해야 한다.

투기로 인한 소득은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세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투기현상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주택부족난이 궁극적인 투기의 원인이므로 주택의대량건설·공급을 위한 정책유도가 필요하고 건전한 투자처를 찾을수 있도록 경제전반정책의 연구·개선이 있어야 한다.

너무 갑작스럽고 과민한 투기억제조치나 주택공급 정책전환보다는 현행 세법의 철저하고 확실한 운영만으로도 심한 투기는 조절할수 있을것이다.

【정리=兪晴錫기자】

◇정부의 단속이 시작된후 투기열기로 들끓던 서울 開浦지역은 모든거래가 중단된채 일단 진정되는 기색을 보이고있다.

公認중개사도입 바람직

분양가 自律化…超過이윤 國民주택 기금으로

對應요법아닌 稅制·金融의 根治요법 있어야

現請約制골격은 유지를

"레이건은 84년再出馬한다"

美칼럼니스트 스워들로博士 인터뷰

단호한 氣質·黨內포석등이 傍證

美선거는「매스컴잡기」로 돈싸움

폭등하는 선거비용
(단위 백만달러)

조엘·L·스워들로博士.

이 사람은 미국에서 聲價가 높은 언론인이자 저술가 교수 대통령선거운동보좌관등 다채로운 경력을가진 인물이다. 지금은 프리랜서로그가 쓴 칼럼은 서부유력지 로스앤젤레스·타임즈등 1백개이상 신문에 게재, 1천5백만 독자를 갖고있다.

스워들로박사가 여러분야를 거치거나 경험을 하면서 끈질기게 다루어온 그의 本領은 대중媒體를 사이에 둔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과 예측등이다.

레이건대통령이 84년선거에 틀림없이 재출마할 것이라는 결론을 갖고 한국에 온 그를 만나 보았다.

—84년이라면 한국나이로 레이건이 74세가 되는 해인데 그래도 재출마할거란 말인가.

▲재출마 안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20세기들어 첫임기를 완전히 마치고 재출마를 단념한 사람은 1908년 디오도어·루스벨트 뿐이다. 하이가 불유쾌한 요소가 돼있지만 지난해에 받은 총상을 젊은이 못지않게 회복했다.

—그것만으론 결론이 너무 섣불하지 않은가

▲아니다. 진짜 다른 방증도 있다.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자 레이건은 네바다州 출신 폴·랙솔트상원의원을 공화당 전국위원장자리에앉혔다. 랙솔트는 80년 대통령선거때 레이건의 사무장을 한 측근이다. 랙솔트의원은 레이건이 재출마하지않는다면 자기가 새 직책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레이건이 재출마할것이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고했다.

레이건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사람들의 콧대를 반드시 꺾어놓고야마는 단호한 기질이 있는사람이다. 건강에 자신이 있는만큼 나이때문에 과소평가 받는것 역시 반격하러 들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중간선거는 레이건집권 2년을 심판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지녔다. 그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레이건에게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 상원의석 분포에 변동이 없고 공화당은 하원에서 26석을 잃었으나 이 숫자는 위헌수위를 아주밑도는 수준이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도 48%가 레이건에겐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는 반응을 얻었다.

기록적 실업률이 내려가지않는상황에서 치른 선거란 점에서보면 레이건은 대승을 했다고 볼만하다.

—유독 이번 선거가 돈과 험담이 난무한 선거라는 평을듣고있는데…

▲사실 양당은 상품판매라도 하듯 신문 방송등 대중매체를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싸움이 대단했다.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을 직접상대로 하는것보다는 매스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집중되었다. 인쇄광고가 나무하고 비용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만큼 많이들었다. 비용의 대부분이 30초를 넘지않는 후보광고에 사용되었다. 그밖에도 선거에 돈이 많이 들게 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다. 정치행동위원회 (PAC) 의 多發 현상이 그중 하나다. PAC는 노조, 소비자단체등 이익단체가 미국 정부정책이나 선거같은 정치과정에 자기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압력을 넣는단체다.

이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걷은회비를 자기들 입장에 가장많이 동조하는 후보에게 헌금하게마련이다. 정치자금 헌금법이 수정된 74년 당시만해도 PAC는 60개정도에불과했으나 지금은 수천개로늘었다. 이들이 쏟아 넣는 돈때문에 미국선거는 앞으로도 돈이 흥청망청 난무하게 되어있다.

—공화당의 의석상실로 레이건이 잘 활용해온 保守연합이 와해되리라는 관측이 있는데…

▲黨에 대한 충성심은 지난 20년사이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케네디정권만해도 자녀들은 부모가 속한 黨을 대부분 따랐다. 그뒤 유동성이 심해졌다. 60~70年代 당충성도로보면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25%무소속이 25%를차지하는정도로 됐다. 그게 81년 레이건집권 후 첫해엔 민주·공화양당이 똑같이 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黨충성도가 약해지는데 영향을크게 준것은 TV를 비롯한 대중매체다. 政見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매스미디어는 정당의 종전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과거 후보자는 黨지명을 받으면 黨의 요망사항만 실행하면 문제는 없었다. 지금은 정당활동을 전혀안할사람도 PAC등에업혀 TV를통해 이미지 구축을해서 당선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있다.

레이건은 알다시피 연출에뛰어난 사람이다. 의회를다루는 솜씨도 대단하거니와 이슈를갖고 TV를통해 곧바로 안방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보수연합유지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본다.

—레이거노믹스 역시 수정없이 가리라고 보는가.

▲그렇게 보아도 될것같다. 레이거노믹스는 처음부터 기본적인 不一致를 지니고있었다. 조세를 삭감하면서 균형예산을도모하고 그러면서 국방비는 대폭 증액하겠다는세가지목표를갖고 레이건행정부는 출범했었다. 그러나 결국 연방정부는 사상최대 빚잔치가되어있고 그부담은 명년에 더욱악화될 기세다.

◇레이건이 84년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진단한 조엘·스워들로박사.

분명한것은 국방비증액원칙은 그대로 고수될것이다. 민주·공화양당의 국방비논쟁은 그 규모에 있지않다. 레이건요구대로 국방비는 증액을 하기로 합의돼있다. 문제는 증가된 국방비의 용도에있다. 전략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核과 재래식 병기, 대형항공모함과 輕항공모함중 어느쪽을 개발할것인가를 가리는 논란이다. 경제상황이 어떻든 국방증강은 하기로 돼있다. 선거결과가 그 방향을 바꾸어놓을 이유는 없다.

—이슈와 선거결과를 대비시켜 본다면.

▲민주당이 하원과 주지사선거에서 앞선것은 경제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실업, 인플레, 이자율등 경제문제가 주요이슈가 되는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반면 범죄, 인공유산, 교내예배, 환경오염등 사회문제가 주요이슈가 될때에는 공화당이 우세했다. 80년선거는 사회적 이슈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선거에 외교정책이 차지한 비중은.

▲외교정책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EEC나 일본을 상대로 보호무역주의가 일부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이슈로 발전하지 못했다. 원래 중간선거란 지역문제가 으뜸이다. 對蘇곡물금수영향을 받은 중서부지역과 역시 對蘇가스관건설장비금수로 발이 묶인 캐터필라 트랙터회사가 있는 지역구에서 논란이 있을정도다. 갈수록 미국선거에 외교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金炳武외신부차장】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得九야 눈을 떠라" 母親 통곡

대답없는 對面5분 "한국에 데려가겠다"

本社記者 통역 記者會見도

【라스베이가스=金首宗·李洪烈특파원】金得九의 어머니 梁善女씨(65)와 형金根龍씨(34)는 라스베이가스에 도착, 17일 상오10시40분(이하 한국시간) 金得九가 쓰러진지 53시간만에 병실을 찾았으나 5분동안 어머니梁씨의 대성통곡으로시종됐다.

검은옷에 주름살깊은 연노랑한복차림의 梁씨는 이날 상오8시5분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곧바로 교민들이 제공한 승용차를타고 데저트·스프링스병원으로 달려갔다.

梁씨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득구야 눈떠라. 엄마가 왔다』면서 『왜이렇게 말없이 누워만 있느냐. 네가죽는다면 차라리 나하고바꾸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옆에 묵묵히서있던 형金根龍씨도 눈물만 훔치고있다가 안주머니에서 대통령 금일봉을 金得九의 머리맡에말없이 꺼내놓았다. 병원측은 梁씨가 대성통곡을 계속하자 환자에대한 영향을 우려, 5분만에 이들을 내보냈다.

梁씨는 金賢治매니저가 병실밖에서 『여기서 자꾸 울면 어떻게하느냐』고 달래자『여기서 안울고 어디서 우느냐. 산에가서 우느냐. 나를 산으로 데려다달라』며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이들은 이어 상오10시55분께 라스베이가스 무궁화여성회(주한미군부인친목단체) 부회장인 金美英씨(53·여)댁으로갔다.

한편 梁씨는 이에앞서 16일하오 5시25분 라스베가스공항에 도착, 약10분동안 본사 로스앤젤레스지사 邊鴻鎭기자의 통역으로 내외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梁씨는 이자리에서 『생사는 하늘에 달린만큼 산소호흡기를떼는것은 있을수없다』며 『산소호흡기를 붙인채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梁씨는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꼭 살려야한다. 다른 사람들은 득구가죽는다지만 믿을수없다』면서 『내아들이왜죽어』등 넋두리와 함께 『지난6월 根龍이집에서 득구를 마지막으로봤는데 「큰경기를 앞두고있다」는 말만 하더니 결국 이거냐』며 연신 한숨을 지었다.

"鍼으로 치료가능"

漢醫師들, 10여분간 1次시술

【라스베이가스=邊鴻鎭기자】金得九를 살리기위해 로스앤젤레스의 李昌彬박사(64·사우스베일러大부총장)등 4명의 한의사들이 17일상오10시40분(이하한국시간) 데저트·스프링스병원에 도착, 趙南信영사의 주선으로 金의주치의인 해머그렌박사와 협의한뒤 11시40분부터 10여분동안 침술을한 1차시술을했다.

李박사등은 시술후 기자회견을통해 『金의 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등 원상태로 복구해야하지만 뇌진탕과 비슷한점이많아 치료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다』면서 19일 상오1시 2차시술을 벌이기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초조한 母情 식물인간상태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美國으로간 金得九의 어머니 梁善女씨가 로스앤젤레스공항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 【로스앤젤레스16日UPI電送=聯合】

甲川황새가 죽었다

주민이 下流서 1마리발견 申告

毒劇物아닌 汚染 때문인듯

청둥오리도 16마리나 죽어

◇비명에간 황새 17일 하오4시께 죽어 개울물위로 떠내려가는 것을 황새구경을 나왔던 사람이 발견했다. 지난12일 이후 이곳에선 청둥오리 16마리가 원인모르게 죽었다. 【大田=聯】

【大德】17일 하오4시께 충남大德郡九則面鳳山里甲川하류에서 황새 1마리가 죽은채 떠내려가는것을 황새를구경나왔던 윤의섭씨(42·大田市中區安永洞372)가발견, 九則면사무소에 신고했다.

발견자 윤씨에 따르면 이날 황새를 구경하기 위해 甲川하류에 나가있었는데 신구교상류 3백m지점의 물위에 죽은황새 1마리가 떠내려왔다는것.

그런데 이 죽은 황새는 지난12일 이곳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던 12마리중 1마리인것으로 주민들은 보고있다.

甲川하류에는 지난12일 황새12마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진후 15일 다시 6마리가 나타났고 17일 상오에도 4마리가 나타났었다.

이처럼 황새들이 잇달아 나타나자 지난15일 관계당국과 주민들은 甲川일대 황새도래지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감시원 10명을 고정배치하는등 황새보호에 나섰다.

甲川에 황새가 처음나타난 12일이후 이곳에 서식중인청둥오리들이 원인모르게 떼죽음을당해왔는데 17일현재 모두 16마리가 죽은것이 확인됐다.

한편 충남도경은 죽은황새의 사인규명을위해 이황새와 甲川하류지역의 물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황새의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것이아니라 수질오염등 다른 원인에 의한것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정은 최근甲川에서 죽은 청둥오리의 체내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않았다는 사실등에 의거한 것이다.

충남도경은 최근 죽은청둥오리들의 사인규명을 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의뢰했는데 이날『부검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것이다.

이 황새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고있다.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이 희귀조들이 최근 우리나라에 떼지어 몰려오고 있는시기이기때문에더욱그렇다.

지난12일 충남大德郡甲川에 황새12마리가 날아온데 이어 16일에는 전남麗川에 1마리, 北淸州에서도 3마리가 각각 발견돼 이들에대한 보호대책이 요청돼왔다.

慶熙大 元炳旿 교수등은 『麗川과 淸州道의 황새는 大德郡 甲川에서 이동했을가능성도 있으나 희소식이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甲川에서 황새가죽은것은 독극물에의한 독살은 아니고 수질오염에 의한것으로보고있어 생태계 파괴문제에서 우리나라가 방책이없는 상태임을 다시 입증해주고있다. 【聯】

學父兄、教師에 행패

高靈국교 수업중 멱살잡고 暴言

【大邱】경북 高靈郡高靈邑 高靈국민학교에서 이 학교육성회이사인 李正洪씨(40·高靈郡병사계장)가 자기자녀의 전학문제를 상의하자며 수업중인 여교사를 불러내어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는등 행패를 부린사실이 뒤늦게밝혀져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17일 경북도경에따르면 李씨는 지난6일 상오10시20분께 딸이다니는 高靈국민학교를 찾아가 수업중이던1학년 1반 담임 梁英淑교사(여)를 교실앞복도로 불러내 대뜸 『딸을 大邱로 전학시키려고하는데 수속을 취해달라』고요구.

梁교사가 『전학을 하려면 전가족이 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절차를 거쳐야하니 수업을끝내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내가 이학교이사인데 왜 말을듣지 않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梁교사가 갖고있던 삼각자를빼앗아 내동댕이치고달려들어겁에질린梁교사가교실로피해들어갔다.

그러나 李씨는 신발을신은채 교실까지 따라들어가 50여명의 어린이가 지켜보는가운데 梁교사의 멱살을잡아흔들며 『너는 글만가르치면 되지 왜 전밖지계구느냐』는등 고함을 지르며 계속 행패를 부렸다는것.

李씨는 자녀들을 大邱로 전학시키기 위해 전가족이 高靈에 살고있으면서 大邱로 이사한것처럼 퇴거증을 만들어 학교에내고 전학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聯】

慶北高부지 팔려

【大邱】慶北高校(교장 이종률)부지가 매각됐다.

16 17일 대구시교위에 따르면 南區大鳳洞 경북고교부지 1만4천6백32평에 대한 매각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광영건설(대표 이수완)에 77억6백원에 낙찰됐다. 【聯】

도난國庫수표 光州 나돌아

40代들, 3장 百62만원…시계등 사가

【光州】강원도 임업시험장에서 도난당한 국고수표중 3장이 지난 10월하순께 光州시내에서도 사용됐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하오 6시께 光州市東區 錦南路1가 화신카메라상회에 40대남자 2명이 찾아와 수협전남도지부 발행 액면57만4천원짜리 국고수표1장(다혀0946815호)을 내고 일제 아사히 펜탁스카메라 1대를 21만원에 구입한뒤 잔액중 1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다음날 찾아가겠다고 말해 주인 鄭元熙씨(28)가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김병구란 이름의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갔다는것.

이들은 또 1시간뒤인 이날하오 7시께 東區大義洞 수정당 시계점에 들러 48만4천원짜리 (다혀0946744호) 국고수표 1장으로 19만5천원짜리 오메가시계 1개를 사고 나머지 28만9천원을 현금으로 받아갔으며 이로부터 2시간후인 하오9시께는 東區鶴洞 대학당 시계점에서 한일은행 광주지점발행 액면 56만2천원짜리 국고수표(다혀0946777호) 1장을 내고 10만5천원짜리 시계 1개와 나머지 45만7천원을 현금으로 바꿔 달아났다. 【聯】

밍크코트 30벌 密輸

美軍위장한 美國人운반책 검거

資金責 韓人2世도

金浦공항 SOFA(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 검사대를 이용한 밀수가 또적발됐다.

金浦세관은 16일 싯가6천만원상당의 밍크코트를 가방에숨겨 SOFA 검사대를통과하려던 미국인 케빈씨(28·무직·미국루이지애너州거주)를 현장에서 검거하는한편자금책인 한국계미국인 趙城淵씨(34·신발수입상·미국로스앤젤레스 거주)도 시내에서검거, 관세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

세관에의하면 케빈씨는 이날하오 9시10분 金浦에 도착하는 NWA017편에 탑승, 미군신분증과 출장명령서를위조, 미군인것처럼가장, 코트 30벌을 숨겨 나가려다 적발됐다는것.

케빈씨는 세관에서 『가방을 운반해주면 趙씨가 1천달러를 주겠다고해서 갖고왔을뿐』이라고 말했다.

세관은 케빈씨보다 30분앞서 입국, 서울中區獎忠洞186의146 친구형집에 숨어있던 趙씨를 붙잡았다.

한편 趙씨는 연행중 세관원 樹모씨에게 『잘봐달라』며 한화1천70만원이 예금된 한국투자신탁 저축통장과 도장을 내놓았다가 오히려 증거물로 압수당했다.

1百20년묵은 더덕 캐내

三陟 頭陀山중턱…무게 6百80g

1백20년이나된 더덕이 나타났다.

화제의 더덕은 길이 28㎝, 폭 14㎝의 크기에 무게가 무려 6백80g이나 된다.

이 더덕은 金龍烈씨(38·농업·경기楊州郡 白石面 基山里)가 강원 三陟郡 下長面 宿岩里 頭陀山 중턱에서 지난13일 하오 3시께 캐낸것.

상심터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촌형 泰烈씨(48)를 도와주며 인근 산에서 약초를 캐온 金씨는 전날인 12일 밤 구렁이가 덤벼들어 싸우는 꿈을 꾼뒤 다음날인 13일 상오 10시께부터 『혹 산삼꿈이 아닌가』생각되어 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5시간 정도나 산속을 헤매다 아무도 밟지 않은 것같은 바위밑에 이르렀을 때 5m정도의 더덕줄기가 보이고 더덕의 향긋하고 진한냄새가 풍겨 괭이로 주위를 파보니 20년생 정도의 더덕 4뿌리와 1백20년생 정도의 더덕 1뿌리가 있더라는 것.

더덕은 漢方에서 沙蔘이라고 하는데 기관지 보호에 좋고 전립선염을 다스리는데 약효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張여인등5명 上告

私債업자 5명은 포기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과관련, 항소심에서실형을 선고받은 張玲子(38·징역15년)·邊康雨(47·징역2년6월)·邊泰洪(48·〃)·林在璜(51·징역4년) 피고인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된 金東鎬피고인(47)등 5명이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李哲熙·李圭光피고인등은 17일하오현재 상고하지 않았는데 상고마감일은 오는22일이다.

한편 징역6~8월씩의 실형이 선고된 사채업자 郭慶培·金鍾茂·田永呆·張東浩·金永喆피고인등 5명은 이날 상고포기서를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지난14일로 확정된 6개월의 형기가끝난 郭피고인은 16일 석방됐다.

자기앞수표 50장 單協서 도난

【裡里】裡里市 단위농협동조합은 지난8일 상오9시에서 하오2시사이 사무실에서 적금계 강모양(28)의 책상위에 있던 50만원짜리미발행 자기앞수표 50장을 분실했다고 17일 경찰에 신고했다. 【聯】

요트로 世界一周 여행

美國人부부 釜山 입항

15톤급 요트로 세계일주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인부부가 16일하오 釜山항에 닻을 내렸다.

이날 부산세관 통선장 앞으로 요트「하본호」를 몰고온 두미국인은 로스앤젤레스거주 아놀드·비크씨(43)와 수잔·비크씨(34)부부.

이들이 타고온 요트는 길이 17m, 높이 10m, 폭 3.5m의 선체에 8m와 9m짜리 돛 2개를 단 목선.

이들 부부는 세계를 10년동안에 일주키로 계획을세우고 지난80년 1월10일 로스앤젤레스 모리나디항을 출발, 하와이 멕시코 일본 요꼬하마등을 거쳐 이날 2년10개월만에 부산에도착한것.

慶南道廳舍 팔려 釜山地法·검찰에

【釜山】막대한 재산규모로 매각이 되지 않았던 경남도청사가 부산지법과 검찰에 팔리게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청사 대지 3천3백89평및 건평 5천5백99평 82억원, 부대시설인 경찰국·지사관사 12억원등 모두 94억원에 청사를 매각키로하고 내주중 부산지법및 검찰과 정식계약을 체결키로 했다는것. 【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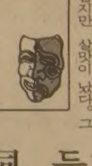
서울大 白南豪교수

대한약학회회장을 지낸 서울大藥大 白南豪교수가 17일 상오6시40분 서울大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영결식은 19일상오 9시 서울大병원영안실에서 서울大藥大葬으로 거행된다.

「꽃동네 福노인」

江南 토박이 李思彬 할아버지

"開浦가「金浦洞」둔갑…살맛 안나"



서울江南 토박이들은 요즘 한참 투기붐이 일었던 開浦洞을「개패」、瑞草洞을「서리꾸리」、반포를「서래」라 부르며 옛정취를 잊지못한다. 이들은 서울의 꽃동네였던江南에 투기붐이 일어 開浦洞이「金浦洞」으로 둔갑하면서 꽃동네고유의 이미지가 사라져 살맛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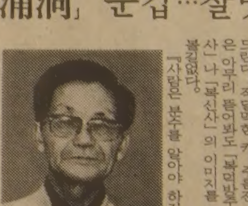
서울江南區 瑞草洞890 동명복덕방의 李思彬할아버지(65·사진)도 그런 토박이중의 한사람. 조상대대로 18대째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있다.

李노인은 瑞草洞 꽃마을에서 꽃과 나무와 8남매를 꽃처럼 키울때만해도 어렵지만 살맛이 났다. 그러나 꽃장사도 어느틈에 독버섯처럼 끼어든 중간상의 농간에 모든걸 잃고 10여년전 허허벌판에 복덕방을 차렸다.

찾아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으나 소일거리론 괜찮았다. 적지않은 돈도 만져 봤고 살고있는 장남의가계에 보탬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복부인·복신사」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나타나며 모든 질서를 부셔갔다. 돈도, 사람도 늘었으나 李노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음만 들썽거리게 해놓고는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이 떠난뒤의「金浦洞」은 상처만 남았다.



李노인도 일거리를 잃었다. 찾아오는 손님도없어 요즘은 복덕방뒤 장안노인정에서 친구들과 10원짜리 화투놀이「뻥」으로 소일한다.

『○순위요? 사람 이름인가요. 다 돈많은 사람들의 장난이지 우리같은 서민에겐 신기루같은 이야기지요』

화가 치미는지 곰방대를 툭툭 두드린다. 작달막한 키, 주름진 老顔은 아무리 뜯어봐도「복덕방주식회사」나「복신사」의 이미지를 찾아볼길없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지요. 집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안다면 그처럼 분수없이 날뛰지는 않을게요』

담담한듯 한숨을 내쉬면서도 내일 날씨걱정을 한다. 날씨가 나쁘면 노인정에 나오는 친구들이 줄어드는게 가장 마음이 쓰인단다. 그 친구들속에서 그 옛날「서리꾸리」마을의 추억에 젖고 두 손녀의 재롱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말한다.

지하철공사로 질퍽거리는 瑞草洞시장앞을 지나 세들어있는 연립주택으로 향하는 李노인. 꽃마을의 마지막「복노인」이다. 【蘇熙漢기자】

한인침례교회

심령대부흥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현대 교인을 위한 하늘나라의 메세지를 교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저 하오니 오셔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침례교회 담임 홍신웅 목사 드림

강사 : 이 영 섭 목사
(목회학박사, 철학박사)
제리힐장로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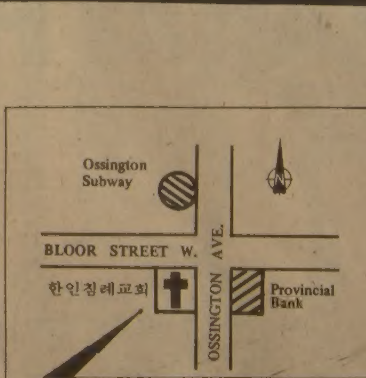
부흥회 일정

●11월25일(목) 저녁 7 시30분
"현대인의 모습" 요한복음10 : 1 －10

●11월26일(금) 저녁 7 시30분
"주께 향한 눈" 시편123편, 1 － 4

●11월27일(토) 저녁 7 시30분
"호렙산의 불꽃" 출애굽기 3 : 1 －11

●11월28일(일) 새벽 6 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13 : 1 － 5
오후 2 시
"하나님의 뜻" 로마서12 : 1 － 2
저녁 7 시30분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6 : 11－18



720 OSSINGTON AVE. AT BLOOR ST. WEST.
OSSINGTON SUBWAY 에서 하차. BLOOR ST. 건너편
☎ : (교회) 531－7604, (사택) 533－1377

◇마무리연습에 열중하는 女子하키선수들 한국여자 하키선수들이 선수촌운동장서 연습하고있다。【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제9회 아시안게임

한국選手團 최종 작전회의

내일開幕 3位싸고 印과 角逐예상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제9회 아시아 경기대회개막을 이틀앞두고 한국선수단은 마무리 적응훈련과 작전숙의에 여념이 없다. 金鍾烈선수단 단장은 17일 하오『한국선수단의컨디션조절은 지금이 고비』라며 지금까지 공급치않았던 한국음식과 대사관을 통해 수입한쇠고기 요리등을 18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급,선수들의 몸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단장은 당초 목표인 종합3위입상은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역시 개최국 印度와 북한이 적수가 될것이라고말했다.

金단장은 현재 처음해외경기에나선 몇몇선수들이 식사문제로 다소 고통을 당하고있고 연습장사용의 애로사항이 있기하지만 큰문제는 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단장은 한국이 86년아시아 경기와 88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선수촌에 입촌한 각국으로부터 많은 질문을받는다고 전제, 의연한 태도로 최선을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적당한시기에 북한·中共을 포함한 아시아 경기 참가각국에 86년서울아시아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도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봄베이와 자이프트에서 경기를하는 요트와 조정선수단을 제외한 18종목선수단 코칭스태프들은 17일 상오 전체회의를열고 최종적인 전략점검을한뒤 일제히 연습에 들어갔다.

16일 야간훈련을한 여자농구팀은 비행기멀미로 고통을 당했던 朴鎭淑이 회복됨에따라 평소의 컨디션을 되찾는등 구기종목선수단은 대부분 제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국외에서 경기를 갖는 레슬링 핸드볼선수단은 경기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을 지키기위해 한낮에 배정된 연습시간을 다소 줄였다.

육상, 복싱, 여자하키, 역도선수단도 선수촌에서 1시간정도씩 훈련을했고 배구, 테니스, 골프, 수영선수단은 실제로 경기가 열리는 코트에서 적응훈련을 했다. 사이클선수단도 벨로드롬도로부터 2시간씩 코스를 익혔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金鍾烈한국선수단장이 선수촌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聯合】

뉴델리 소식

개회식 마스코트 산코끼리 대신 人造로

水泳연습장水溫낮고 물더러워 항의소동

복싱 중량급선 10온스 글러브를 사용

◆…뉴델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7일 복싱 웰터급 이상의 중량급선수들이 당초 사용키로 했던 8온스 글러브를 10온스짜리로 변경시켰다.

조직위의 이같은 조치는 국제아마복싱연맹의 긴급회의에 따른것인데 10온스 글러브사용은 8온스짜리에 비해 강도가 약해 선수부상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는것。

이에따라 8온스 글러브만을 준비한 조직위는 일본에 10온스 글러브를 긴급주문하는 소동을 빚었다。

조직위 한관계자는 최근 金得九와 맨시니와의 프로복싱 WBA 라이트급 타이틀매치서 金선수가 뇌에 손상을입고 사경을 헤맨다는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아마복싱연맹이 16일 긴급회의를 소집,이같이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최대의 인기종목인 축구의 경기방식이 대회개막 3일을앞둔 16일까지 확정되지않아 혼선을 빚고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당초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경기방식과 예선리그 조편성이 주최국에 유리한점등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변경토록 요구하고 만약 관철되지않을경우 이번대회에서 축구경기를 취소하겠다고 경고。

그러나 조직위가 AFC의 요구에 부정적인태도를 보임에따라 쌍방이 서로상대를 비난하는등 논쟁을벌이다 결국 협상에 들어갔는데 빠르면 17일밤에나최종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대회조직위원회는 19일의 개막식에 살아있는 마스코트 코끼리 아뿌대신 꽃으로 장식한 인조코끼리 아뿌를등장시키기로 결정。

조직위는 살아있는 코끼리 아뿌의 등장이 동물학대등을 이유로 각계로부터 격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모조코끼리를 내세우기로 결정하고 군당국의 협조로급히 코끼리제조에 착수,약 5.4m 높이의 모조코끼리를 만든다고。

모조 코끼리는 이번대회 21개종목의 경기모습이 새겨진 기판위를 회전하면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게된다。

◆…수영연습장은 수온이 낮은데다 물이 더러워 선수들이 대회당국에 항의소동을 벌이고 있다。

모던스쿨과 내셔널스타디움풀은 낮은 수온때문에 각국선수들이 이를 기피하고 신설된 팔카토라수영장으로만 몰리고있어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실정。 팔카토라수영장은 상오 7시부터 하오7시까지 12시간동안 선수들에게 개방되고있으나 경영과다이빙 수구등 19개국 3백51명의 선수가 북적대는 바람에 연습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선수촌에 비치된 계기용 저울이 사용불능상태에 있어 체급경기의 선수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선수촌에는 3대의 계체용저울이 비치돼있으나 열쇠를 가진 관리인이 자주행방불명, 이를이용할수없다는것。

복싱등 체급경기는 자신의 체중을 점검하기 위해 저울의 사용이 빈번한데불편을 느낀 한국선수단은 17일까지 저울을 사용못할 경우 별도저울을 구입할 방침이라고。

聖火최종주자 5명

亞洲경기기관지、한국선수단 크게소개

李源京 체육부장관 選手村방문 격려

◆…19일의 제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는 5명의 성화주자가 메인스타디움에 등장한다。

첫주자인 구르바찬·란다와 전印度허들 최고기록보유자가 성화를들고 입장하면 이어 60년대 「날으는 시크」로 불렸던 육상중거리 스타 밀카·싱이 이를 인수하고 다시 카말지트·발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비르·싱과 다이아나·히메스양이 50m쯤 달린후 스타디움동쪽끝에 위치한 聖火臺에 점화하게 된다。

◆…82년도 AGF(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원회및 총회가 16일하오 이곳 아쇼크호텔회의실에서 열려 오만과 몰디브군도등 2개국의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소프트볼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뉴델리아시안게임의 기관지인 아시아드·크로니클지가 16일첫선을보였다。

대회조직위가 발행하는 20페이지짜리 이 신문은 이날 창간호에서 한국이 축구와 탁구 배드민턴 농구등에서 훌륭한 성적을거둘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여자선수들의 사진을게재했다。

◆…李源京체육부장관이 제9회 아시안게임에 출전중인 한국선수단을 격려키위해 뉴델리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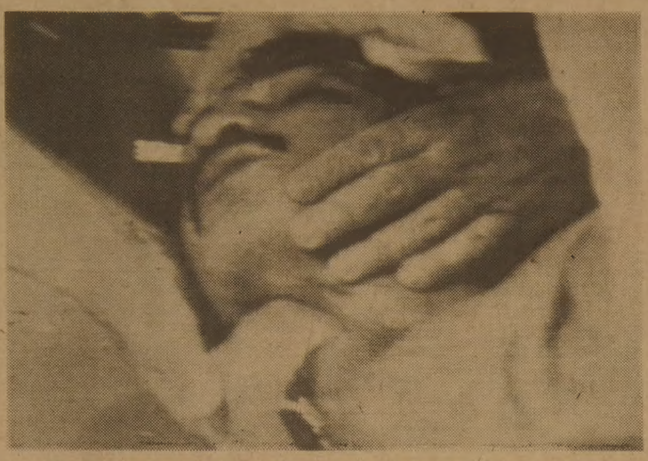
샤두라니印度대회조직위원회 의전국장과 池炳哲교민회장의 영접을받으며 하오3시(한국시간하오6시30분) 뉴델리공항에 도착한 李장관은『더운날씨에 수고들이 많다』고 말하고『어려움이 많더라도 서로도와가며 멋있게 대회를치러보자』고 말했다。【신문공동취재단=聯合】

世界타이틀戰 12라운드로

프로복싱규칙改正論 國內外서 강력대두

휴식90초、主審재량권도 강화

내년6월까지 對策 마련될듯



◇응급치료 받고있는 아르게요 아르게요가 WBA주니어웰터급챔피언 프라이어의 강타를맞고 14회에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고있다。

金得九선수의 비극적인 링사고와 관련,프로권투선수들을 보호하기위해 현경기규정과 세계타이틀전등의 운영방식을 대폭 뜯어고쳐야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세계권투평의회(WBC)의 호세·술레이만회장(멕시코)은 권투경기를 보다안전하고 인도적인 스포츠로만들기위해서는 현권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베니스 WBC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파리에 머문 술레이만 회장은 『프라이어-아르게요、맨시니-金得九 대전서 아르게요、金得九가 큰상처를 입은 사실을 지적,▲세계타이틀전의 라운드를 현 15회에서 12회전으로 줄이고▲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휴식시간을 현재의 1분에서 1분30초로 늘리고▲주심의 자유재량 권한을 강화,수세에몰려 얻어터지는 선수에 대해서는 주심이 스탠딩 다운을 선언토록 WBC 집행위원회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83년 6월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17일 현재 WBA(세계권투협회)는 경기규정 개정문제에대해 구체적반응을 보이지않고있으나 라이벌인 WBC와 회원들을 의식, 대책을 강구할것으로 보인다.

경기규정을 바꾼다고 링사고가 근원적으로 방지되는것은 아니지만 프로권투경기를 흥미본위에서 선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하여 운영한다면 링사고를 크게 줄일수있다는 것이 미국스포츠 과학자들의 공통의견이다.

한편 국내 권투과계자들도 金得九사태가 수습되면 선수보호를 최우선으로하여 일부 경기규칙을 손질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있다.

6온스글러브와 딱딱한 멕시코 글러브의 사용금지, 선수신체검사조항강화, KO된 선수에 대한 출전제한, 매니저와 프러모터의 선수보호의무조항 신설등이 거론되고있으며 8명의 의사로 구성된 한국권투위원회(KBC)의무위원회서도 조만간 선수보호 부상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 83년부터 강력히 실시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KBC는 동양권에서 개최될 각종국제경기에 대비, 필리핀 마닐라에있는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사무국과 OPBF 경기규칙보완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링悲劇 다시는 없어야"

美매스컴連日비판 "이젠 무슨措置 내릴 때"

【LA支社=朴興津기자】미국의 주요일간지및 TV방송은 金得九와 맨시니의 대전이 세계권투계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었다고 보도하고있다.

LA타임즈와 헤럴드·이그재미너는 16일 金得九의 혼수상태를 스포츠면 톱뉴스로 다루고『코리아의 金得九와 같은 비극이 링위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이제는 무슨조치를 취해야할때』라고주장했다.

CBS TV는 오는20일하오에방영될金得九특별프로를 제작중에있으며, ABC TV도 16일아침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에서 이번 경기를 문제점으로 등장시켰다.

美매스컴들은 金선수가 맨시니의 펀치를맞고 빈사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LA타임즈는『현재 권투가 마치 옛날 희랍에서 열린 격투기를 방불케한다』며 게임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라스베이가스의 CBS TV(KLAS)와 NBC TV는 金得九가 맨시니에게 얻어맞은 장면만을 특별편집방영하고『사람이 이렇게 얻어맞고있는데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은것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결론지었다.

헤럴드·이그재미너는 16일 사설로 취급『지난주 미국인들은 스릴있는 권투를 관람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것을 명심해야한다』면서 권투경기를 영원히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제2차 세계대전후 3백47명의 복서가 링위에서 죽어간 통계를보도, 이밖에 귀머거리, 실명자, 반신불수가된 선수까지합치면 권투로인한 희생자는 이루헤아릴수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맨시니도 이번경기가 끝난후『권투선수가 매경기때마다 목숨을걸어야하는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다. 1천만달라를 받아야 경기에 임하고 싶은심정』이라고 말했었다.

또 이번경기를 주최한 프로모터 봅·애럼은 金得九-맨시니경기전날 자신이관계한 아르게요와 프라이어게임에서도 아르게요가 14회에 연타당해 죽을뻔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梁회장 金선수問病

【라스베이가스=李洪烈특파원】한국권투위원회梁正圭회장이 17일하오(한국시간)라스베이가스에 도착,金得九를 문병했다.

梁회장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WBC연례총회를 마치고 金得九의 수습대책을 위해 라스베이가스에 온것이다.

梁회장은『金得九의문제는 가족이 도착했으므로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편의제공에 최선을다하겠다. 이번 金의 사태를국민과 복싱팬들이 납득할수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7일만에 罷業끝내

美아메리칸풋볼 선수

【뉴욕=聯合】보수문제를 놓고 구단주와 대립, 경기를 보이코트해왔던 美國 아메리칸풋볼선수들의 파업사태가 57일만에 매듭지어졌다.

선수대표들은 17일 구단주들과 11시간의 마라톤회의끝에 극적인 합의점에 도달, 그동안의 파업을 풀고 팀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선수대표들이 구단주와 합의한 내용은 파업선수 전원이 참가한가운데 투표를거쳐 최종확정될 예정인데 현재의 분위기로 미루어 원안대로통과될것이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선수들은 곧 캠프에 참가, 리그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시즌은 8게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날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1월9일까지 잔여경기를 모두치르고 1월16일엔 양대 컨퍼런스의 준결승, 23일엔 결승전을 치르게되며 양대 컨퍼런스의 우승팀이 벌이는 슈퍼볼은 30일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서 열리게된다.

◇맨시니 "은퇴않겠다" WBA라이트급챔피언 레이·맨시니선수가 영즈타운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金得九선수와의 대전상황에관해 얘기하고있다。그는 은퇴할 생각이없으며 다음 도전에대해서도 아무런 고려도 하고있지않다고 말했다。옆은 그의어머니。【영즈타운(美오하이오州) 16日 AP電送=聯合】

在日同胞 선수12명 국내팀에 드래프트

한국 프로野球、日측과 합의

히로시마(廣島)카프스의 주전투수 후꾸시(福士敬章·32)를 비롯, 日本 프로야구에서 활약중인 在日同胞선수 12명이 83년시즌부터 국내무대에서 뛰게된다.

국내 우수선수 부족으로 해외동포선수 영입을 꾀해온 한국야구위원회(KBO)는 日本 프로야구사무국및 12개 구단 이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日本 각구단으로부터 1명씩 총12명의 동포선수를 양도받아 국내 6개구단에 드래프트로 공급케 되었다.

日本프로야구 커미셔너 사무국은 17일 국제전화를통해 日本프로야구 12개구단의 합의에따라 한국프로야구에 12명의 선수를 트레이드·머니(전속계약양도금)없이 양도할것을 확약했다.

히로시마·카프스의 우완투수로 79년 히로시마의 日本시리즈 제패에공헌한 후꾸시는 국내프로야구에 큰관심을 표명, 참여할뜻을 비쳤으며 히로시마구단역시 그의기여도를 인정, 韓國行을 동의하고 있다.

마쓰하라(松原明夫;福士敬章)등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그는 프로경력 14년으로 78년15승8패, 81년 12승9패등을 마크, 日本프로 상위급 투수로 평가되고 있다.

KBO는 83년시즌 日本구단들의 선수명단이 공고되는 11월30일이후 국내구단들을 대리해 대상선수들과 개별접촉, 가계약을 맺어 국내팀에 인도할 계획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0

그 황당한 곤경에서 그들을 구해준 건 뜻밖에도 닭이었다. 닭은 마지막 저항을 끝내고 푸드득 날아오를듯 비상의 폼을 한번 잡더니 목을 느리고 풀썩 나동그라졌다.

『이를 어쩌나, 이런 꼴을 보여드리다니. 이를 어쩌나』

그제서야 오목이는 닭의 망신을 자신의 망신처럼 송구스러워하며 죽은 닭을 거두어 쉐타자락으로 감추어가지고 부엌으로 종종걸음쳐 들어갔다.

부엌속에서 오목이는 다시 생기가 났다. 재빠르게 끓는 물을 끼얹어 닭의 털을 뽑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민첩하고 생기있는 동작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수지는 꿈을 꾸고있는것처럼 생각하다가 꿈이었으면 생각했다.

식모애는 줄창 멍한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이상한 사람들을 구경하고있는것같은 기분에서 못벗어나고 있었다.

문득 수지는 꿩처럼 아름다운 닭털을 무참하게 뜯어내고있는 오목이 발밑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청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은 머리로 왔다기보다는 목줄기를 타고온것처럼 목구멍이 괴롭게 메었다. 수지는 그 고통을 심통한 것을 참기위해 계속해서 자기목을 두손으로 부둥켜안고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당장 편안해질수있는 방법을 알고있었다. 그것은 오목이 발밑에무릎을 꿇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알고있었다. 오목이의 발밑에 무릎을 꿇는다는건 곧 자신의 삶의 축(軸)을 꺾는것이란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하고 품위있게 회전시켜온 축을 아무런 대책없이 꺾어버리는 짓을 저지를만큼 무분별하지가 못했다.

『찹쌀이 한줌 있었으면 좋겠네』

닭의 손질을 깨끗이 끝낸 오목이가 식모애한테 말했다. 식모애가 수지 눈치를 보았다. 수지는 그 자리를 모면할 구실이 생긴것만 우선 다행스러워 식모애에게 눈짓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식모애가 따라 들어왔다.

수지는 방바닥으로 조용히 무너져내렸다.

『사모님, 어쩌자고 그 여자가 그렇게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두세요. 별 주책 같은 여자 다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까짓 닭 한마리를 가지고 제멋대로 날치는지 꼭 뭣에 홀린 것 같다니까요』

식모애는 그녀가 이해할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신의 상식선으로 끌어내려보려는듯 초조하게 수다를 떨기시작했다.

『듣기싫다』

수지는 바깥에 신경을 쓰며 식모애를 나무라고 문갑을 열었다. 문갑에서 인삼이 든 상자를 꺼낸 그녀는 굵은 인삼을 한움큼 식모애에게 집어 주었다.

『찹쌀만 넣을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넣고 고으렴. 아마 대추도 어디 있을걸. 압력솥을 써서 될수있는대로 빨리 고도록 해라』

『사모님, 그 닭을 도련님들한테 먹이시려고요?』

식모애가 천부당만부당하다는듯이 오만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아니, 그 여자를 대접하고싶구나. 빨리서두르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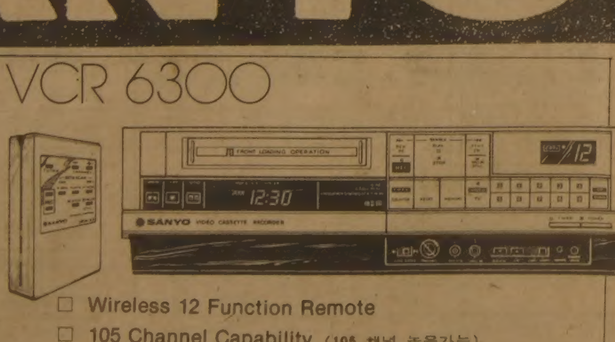
『사모님?』

식모애가 말뜻을 못알아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나 수지는 이미 식모애의존재를 잊은듯 멍하니넋나간 사람처럼앉아 있었다.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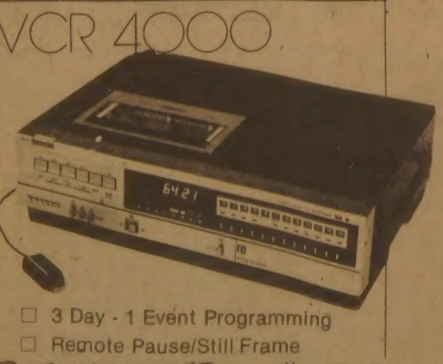
VCR 6300



☐ Wireless 12 Function Remote
☐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 3 Day - 1 Event Programming
☐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8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전 광 재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 . .better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골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 -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인수, 인계 일절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파트타임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후7시~밤12시(일~금요일) Victoria Pk. & Steeles
전화 : 499-4459, 299-1431

풀타임 웨이트리스 구함.
아침 6시30분~2시까지
전화 : 251-1908, 466-4578(오후4시 이후)

꽃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트럭 드라이버 구합니다. 우대함.
전화 : 762-1572, 762-9854

그라나다 식당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923-3060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씨알학교에서 서쪽버스를 운전할 분과 태권도 선생님을 급히 찾읍니다. 겸하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전화 : 960 -0074

그로서리 스토아 캐쉬어 구함.
남·녀 불문. 파트타임.
전화 : 691-3666

일요일만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12시~8시까지
전화 : 921-0624

공장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풀타임.(Markham & Hwy 401)
전화 : 438-0380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7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메니저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83-0134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 주실분 구함
(5세 여아) 전화 : 533-3545

동반자 구함
약회사 메니저임. 독일태생. 캐나다에서 교육 받았음.
22세~35세 정도되는 여성으로써, 교육받고,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음. 친구나 결혼용의가 있는분.
전화 : 1-727-6490 (Gert)
콜렉트·콜로 걸어주기 바람.

구 직

베이비시터 원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전화 : 920-0930 Mrs.김

스카브로지역 가게에서 일할
Cashier 또는 Helper 필요하신분
(17세, 19세 여학생임) 전화 : 291-4547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칭(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전화: 243-7752(저녁7시 이후)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힌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몰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전화 : 535-4441 Mr.김

빌딩 매매 또는 렌트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적당하고 좋은 위치. 좋은 가격.
982 Pape Ave. 전화 : 422-5029 Mik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리스 : 5년
전화 : 535-683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Baskin Robin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Metro 바로 북쪽. 좋은 매상.
자세한 문의는 JOE DI LILLO(조·디·릴로)
전화 : 746-4360
Hollywood Real Estate Ltd.

2 Door 팜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3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춘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5 GORDON BAKER RD. SCAR.

498-1300, 496-2196

MACHO 레스토랑 이 해 창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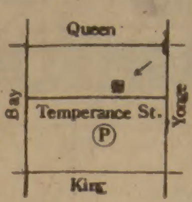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해병의 밤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모함을 떠나면 대수진 뿐인 상륙전!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전우간에 화목 단결하고 상부 상조하는 단합된 우리의 전통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일 시 : 1982년12월8일(토) 18시
장 소 : C.F.B. TORONTO (킬과 세파드)
회 비 : 30불(커플) 15불(싱글)

특별순서 ㅁ정영수 태권도 시범
ㅁ김용순 무용 순서
최영호와 그의 악단

•연 락 처 : ㅁ송기선 ☎ 621-2059
ㅁ이인모 ☎ 691-3666
ㅁ하주용 ☎ 769-5956

※식사전 음료수(술포함)는 본회에서 제공 함.
※많은 경품및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한국 참전용사및 많은 내외귀빈들이 초청되어 있음.

해병 전우회 회장 남 상 현

<11월22일 (월)부터 공연시작>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국현대 무용단 뉴 서울 에서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MAGNAVOX—
BY PHILIPS

김씨는 $3,000이상 들여서 스테레오를 구입했는데 소리가 꽤 좋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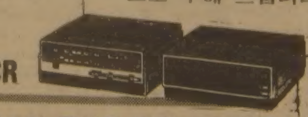
이씨는 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스테레오를 장만 했다는데 소리가 기막히게 좋더군요.

이 두분의 차이점이 뭔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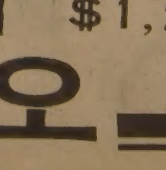
이씨는 그의 음향시설을 대일오디오비데오에서 구입했다는 점 입니다.

■저희 회사는 40여 유명제조회사의 지정 판매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전축, 테레비전, 카 스테레오, 전화기, 테이프, 휴대용 Keyboard, 스튜디오용 녹음시설, 마이크등 수천가지의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취급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구매자의 요구에 적당한 물건을 추천해서 캐너디언 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구해 드립니다

$1,399
VR8382 BK
PORTABLE VCR



●가볍고(3.6kg 충전밧데리 포함.)
●2주간 4가지 프로그램을 녹음장치 할수 있음.
●8시간까지 녹음 가능.
●고성능 원격조정 장치.
●슬로우모션과 화면고정 가능.



VR8269BK
$1,279
●촛불에서도 촬영가능.
●6 : 1 자동ZOOM 렌즈.
●고성능 자동 촛점조정.
●원격조정 촬영.
●자막과 숫자를 집어 넣을수 있음.

정통한 CONSUMER'S REPORT 잡지·5월호에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은 VHS식 MAGNAVOX의 최고급 휴대용 비데오 머쉰과 카메라를 도매가격으로 드립니다.

대일오디오비데오
270—0679 (Before 5PM.) **279—3174** (After 5PM.) 임문호